

7
2022
VOL. 313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百年顧客



hotel 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 내 식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자바팔레스호텔 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골프 연습장

- 일반 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헬스장, 사우나, 스파 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자바팔레스호텔 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익 제공 (사전 예약 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Since

8/15

Valid

8/16

Hyundai STARGAZER

Coming soon.





월간 한인뉴스 7 2022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contents

2022. 7. 통권 313호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람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 혼돈의 시대, 글로벌공급망의 재편
... 인니 주요 생산기지될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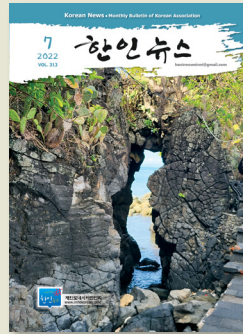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9개월 간의 코로나19 대응일지

12

김재훈의 '세무 TALK' - 판촉비

13

제6대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출범식



표지사진: 롬복 Pura Batu Bolong
2022. 3

- | | |
|--|--|
| 14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55 - 독재자의 길 | 46 [인터뷰] 한인회부회장 이우열 KB Bukopin 신임은행장 |
|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48 그 낮은 느낌들의 정체 <김준규> |
| 22 문법왕 <민선희> | 50 행복에세이 - MZ시대의 유교 보이를 응원하다 <이병규> |
| 26 자카르타 맛집탐방 - THE ACRE <주윤지> | 52 열두 달의 식물칼럼9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 28 [인터뷰] 이강현 신임 코참회장 | <권영경> |
| 30 [서평] 아이오닉 5와 포니원 <조연숙> | 55 인도네시아협력원 개원 |
| 33 즈빠라 한인회관 개관식 | 56 자카르타 특파원 임기 3년을 마치며 (하편) <성혜미> |
| 34 72주년 6.25 전쟁 기념식,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 <임서영> | 59 무궁화유통, 2022 K Brand Award 에서 리테일 부문 |
| 35 중부자바 주지사와의 면담 | 우수상수상 |
| 36 두 개의 시선 - 무지론 <헬렌> | 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11) <이승민> |
| 40 아랍의 왕자를 꿈꾸던 소년(2) <박유민> | 62 [편집장 모니터] 아직도 성장기 <홍석영> |
| 43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68 생활정보 |



논설위원 신성철

혼돈의 시대, 글로벌공급망 재편… 인니 주요 생산기지될까?

최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KCC글라스 및 롯데케미칼 등 한국 첨단산업 대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 투자를 모색하고 있으며, 애플 아이폰의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원부국이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지각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브(Hub) 국가인 중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며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및 멕시코 등이 중국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탄탄한 인프라, 제조업 생태계를 갖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간에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와 대륙으로 공급망이 다원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해외 스마트폰 생산기지 중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이 회사의 총 스마트폰 생산량의 61%를 차지할 만큼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어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베트남의 인건비가 크게 오른 것도 생산망 재편에 나서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베트남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량 1억8천만여대 가운데 1천900만대를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1970년~1980년대에 미국은 정치·군사 측면에서 구소련, 경제 측면에서는 일본과 각각 패권 다툼을 벌였다. 1990년대 초에 구소련 붕괴와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미국은 독주체제를 갖췄다. 경쟁 상대가 사라진 미국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량 독주하면서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를 확산시켰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밸류체인은 국

적에 비중을 두지 않고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세계화의 논리로 미국은 슈퍼파워를 구가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화는 악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지역분쟁, 자원민족주의와 식량안보가 다시 떠오르면서 더 이상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를 기대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1위, 보크사이트는 5위, 금은 7위이다. 구리와 주석도 주요 생산국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전격 금지해 국제시장을 흔들었고, 니켈이 필요한 배터리, 전기차 생산업체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도록 투자를 이끌어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광물 확보와 제련·정련, 전구체 및 양극재·배터리셀 생산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체인’을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주요 생산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급망·디지털 경제·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의제를 다루는 다자협의체로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맞불을 놓은 격이다. IPEF에 참여하는 13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브인 중국을 대체할 국가나 지역을 당장 찾는 건 쉽지 않다. 중국은 제조업의 생태계가 갖춰져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등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 및 사회간접자본이 아직 열악해 중국의 대안으로 당장 대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천연자원, 풍부한 노동력과 큰 내수시장을 갖춘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끝)



- 6월 25일, 인도네시아 빈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품전달(자카르타 주정부-Rumah Zakat에 생필품 박스 250개 기증)
- 7월 17일, 코로나 대응 수석부회장단 회의
- 8월 10일, 한인회 & 실로암병원 간의 COVID-19 의료서비스 협력 MOU 체결
- 8월 9월 10월, 코로나 19 확진 자가격리자(자카르타 인근)에게 비상식량 꾸러미 전달
- 9월 2일, 대사관, 한인회, 요식업체 간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간담회(한인회 회의실)
- 10월 13일, 11월 7일, 코로나19 및 외국국적동포 대상 한국산 KF마스크 공동구매 및 배포(한인문화회관 1층)

<2021년>

- 3월 25일, 재외국민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입국 시 애로, 건의사항 해결 외교부에 요청
- 5월 24일~31일, 백신접종자 조건부 자가격리 면제에 관한 협조 외교부와 국회에 요청
- 6월 24~7월 2일, 한인감염자 특별 전세기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환자 이송(20명)





- 7월 2일 3일, 한인백신접종(시노백) 희망자 수요조사
 - 7월 5일~12일, 한인코로나 감염자 특별전세기 편성을 위한 2차 수요조사, 환자 이송(9명)
 - 7월 14일~20일, 일시귀국 재외국민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실시 협조 외교부와 질병관리청에 요청
 - 7월 20일 ~ 동포확진자를 위한 민 관 합동 의료지원 다각도로 확대 추진(코로나19 TFTeam)
 - 7월~10월 COVID-19 극복 및 의료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각계에서 기탁
 - 7월 8월, 코로나 중증 한인 수술비, 치료비 지원
 - 7월 19일, 확진자 대상 ‘산소 발생기, 구급키트’ 지원 및 ‘명지병원 원격 상담 서비스’ 실시
 - 7월 21일~ 8월 20일 일시 귀국 재외국민(인도네시아)을 위한 백신 우선접종 본격 실시
 - 8월 4일, ‘한인회 & 명지병원(MJ버추얼케어센터)’ 간 온라인 원격진료상담을 포함하는 ‘지정병원 서비스협약’ 체결
 - 8월 5일, 인도네시아지역사회 COVID-19 의료장비 기증을 위한 한인회 기부금 코참에 전달
 - 9월 15일, 대웅제약과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시범운영 관련 화상회의
 - 9월 23~9월 29일, 코로나 19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관한 협조요청
 - 10월 25일~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대상 ‘대웅제약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행
 - 11월 29일~ 12월 1일 한인동포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추가접종 수요조사 실시
 - 12월 24일 한인동포 백신추가 접종 실시(1차 253명)-한인문화회관
 - 12월 30일 한인동포 백신추가 접종 실시 (2차 273명)-한인문화회관
- <2022년>
- 1월 22일 한인동포 백신추가 접종 실시 (3차 320명)-한인문화회관
 - 2월 12일 한인동포 백신추가 접종 실시 (4차 311명)-한인문화회관
 - 3월 5일 한인동포 백신추가 접종 실시 (5차 307명)-한인문화회관
 - 6월 30일 한인 감염자의 현격한 감소로 격리지원 물품 및 구급키트 발송 마무리

박재한 한인회장은 “상황에 따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한인동포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준 여러 기업과 한인동포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협력하는 한인사회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COVID-19 구호기금 중간결산 보고 ◆

(단위 : 루피아)

구분	세부내역	2021년	2022년	2022년 6월 현재
수입	COVID-19 의료구호 기부금	4,375,107,403	-	
	계	4,375,107,403	-	4,375,107,403
지출	의료키트 제작비	515,867,758	166,113,640	681,981,398
	백신운용 및 의료지원	266,500,000	442,417,995	708,917,995
	구호물품 지원비	200,000,000		200,000,000
	의료기기 구입비	321,525,000		321,525,000
	취약계층 지원비	279,000,000	30,904,350	309,904,350
	배송, 통관비	107,958,270	27,040,500	134,998,770
	인쇄제작비	15,906,400	11,810,000	27,716,400
	계	1,706,757,428	678,286,485	2,385,043,913
	차액 (수입 - 지출)			1,990,063,490





판촉비(Biaya Promosi)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을 대행하다 보면 판촉비와 관련하여 왜 비용에서 빠느냐 (손금불산입)에 대한 문의를 받은 한다. 인니 세법은 판촉비와 관련하여서 한국과 차이가 있는데 손금산입(세무상 비용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PMK No.02/PMK.03/2010에 규정하고 있다.

판촉비는 매출 상승을 위하거나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제품의 소개 및/또는 권장하는 맥락에서 납세자가 발생하는 판매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판촉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금액에 한해서 가능하고 반드시 법인세 신고시 판촉비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손금산입 가능한 판촉비 :

- 전자 매체, 인쇄 매체 및/또는 기타 매체의 광고비
- 제품 전시 비용
- 신제품 도입비용 및/또는
- 제품 판촉과 관련된 후원 비용

손금불산입 판촉비 :

- 판촉 활동의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어떤 이름과 형태로 금전 및/또는 시설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
- 비과세 및 최종분리과세로 소득을 적립, 징수 및 유지하기 위한 판촉비

판촉비와 관련하여 손금산입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손금산입 가능한 판촉비에 해당되고 아래 도표와 같이 판촉비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판촉비 명세서 :

DAFTAR NOMINATIF BIA YA PROMOSI

Nama Wajib Pajak :
NPWP :
Alamat :
Tahun Pajak :

No	Data Penerima							Pemotongan PPh	
	Nama	NPWP	Alamat	Tanggal	Bentuk dan Jenis Biaya	Jumlah (Rp)	Keterangan	Jumlah PPh	Nomor Bukti Potong

수령인 자료(Data Pererima)로서 성함, 납세등록번호, 주소, 수령날짜, 유형, 금액, 적요 및 원천징수(Pemotongan PPh)와 관련하여 원천세 금액 및 원천징수증빙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끝>



제 6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출범식 이강현 신임회장 취임



이강현 신임회장



송창근 전임회장



박재한 한인회장 송창근 전임회장,
박태성 대사

취임사에서 이강현 신임회장은 서방 국가들과의 극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우려와 기회의 시기에 한인 기업들의 정도와 방향 제시를 위해 ▲조직의 하이브리드로 대기업과 토속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회원사 유치 강화와 코참 자문위원을 확대 구성 ▲철저한 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는 6월 29일(목), 물리아호텔에서 <제6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출범식>을 개최하고, 코참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6대 코참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이 자리에는 박태성 대사와 박재한 한인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코참 회원사와 관계자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박태성 대사는 “코참이 상생의 플랫폼으로 우리 기업을 위해 뛰는 마당밭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축사에서 “변화에 빠른 대응으로 신뢰받는 한인상공회의소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며 한인사회에서 더욱 화합하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3,4,5대 회장을 거쳐 지금의 역량있는 코참으로 이끈 송창근 전 코참회장은 1991년부터 몸담았던 코참 30년을 회고하며 끝으로 성숙한 한인사회를 당부했다.

비로 정관 개정 ▲다양해지는 한-인니 양국간 사업의 기회를 확대, 한인 기업과 인니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생 사업 및 스타트업 지원 ▲인니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B2B 대응 등 까딘, 아핀도와 같은 인도네시아 대표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 이미 코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상의, 일본상의, 영국상의, 유로상의 등 외국상공회의소들과의 지속적 유대도 이어나가 인니 정부를 효율적으로 압박하고 한인 기업에 유리한 정책 유도 ▲한인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효율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등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강현 신임회장은 제 6대 코참 회장단과 집행부, 여러 조직의 개편으로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는 1991년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1999년 한인상공회의소로 공식 출범하였고 2013년 확대발족하여 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났다.



말레이시아를 분쇄하자!!

지난호에 이어

헬디 자파르는 수카르노의 아홉번째 부인이 될 당시 수카르노는 65세의 노인이었고 헬디는 18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헬디 역시 유리끄 못지 않게 젊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생활 역시 불과 몇 년간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결별하게 되는 수순은 유리끄의 경우와 정반대였다. 수카르노의 위상과 미래가 점점 위태로워지자 헬디 측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너무 어린 아내는 쓰러져 가는 거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노인의 고집은 간혹 구질구질해지기도 한다. 수카르노는 자기가 죽기 전엔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헬디는 21살이 되던 해인 1968년 6월 19일 기어코 반자르 왕족출신인 구스띠 수리안샤 누르라는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한다. 늘 여인을 떠나가던 수카르노도 말년엔 그렇게 여인에게 버림받기도 했던 것이다.

헬디 자파르는 수카르노의 부음을 듣던 당시 만삭의 몸이었으므로 수카르노의 전, 현 아내들 대부분이 참석한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1967년 수카르노를 등떠밀어 하야시킨 수하르토와는 양집안이 철천지 원수인 셈이었는데 헬디의 자녀 여섯명 중 딸 마야 피란띠 누르가 수하르토의 손자인 아리 시깃과 결혼하면서 잠시 혼맥이 얹히게 된다.

수카르노는 아홉번의 결혼을 통해 그중 다섯 명의 아내로부터 모두 열 명의 자녀를 얻었다. 그중 인도네시아의 5번째 대통령을 지낸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는 파트마와티에게서 얻은 장녀였고 막내인 구루 수카르노뿌뜨라는 수카르노의 예술적 기질을 물려받아 안무가이자 작곡가였고 문화영화 제작자이기도 했다. 그의 형 군뚜르와 누나들인 라크마와띠, 쑁마와띠 등도 모두 정계에서 활동했다. 수카르노가 나오꼬에게서 얻은 딸



파트마와티의 다섯 자녀들과 단란하던 한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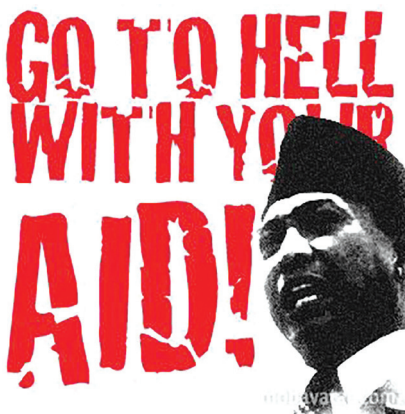


헬디 자파르

까르띠카는 2006년 바클리 글로벌은행의 CEO였던 네덜란드인 프릿츠 세에거스와 결혼했다. 그녀의 다른 자녀들은 비교적 조용히 살았지만 수까르노의 아들, 또는 딸이라는 이름표는 때로는 명예로서, 또는 굴레로서 그들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파국으로 가는 길 - 쿠데타 전야

공산진영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린든존슨의 미행정부와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무렵인 1964년 수까르노는 반미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부관료들은 미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종 이권들을 비난했고 인도네시아 공산당 PKI가 사주한 폭도들은 물리적 공격을 감행했다. 헐리웃 영화들은 상영이 금지되었고 미국의 서적들과 비틀스 앨범들은 거리에서 불태워졌다.



그 잘난 원조 갖고 꺼져 버려라!

심지어 미국 로큰롤음악을 연주한 인도네시아 밴드 꾸스플러스는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다. 장발을 단속하던 당시의 한국기준으로 본다 해도 ‘퇴폐조장’이란 죄목이어야 하지만 수까르노 정권은 미국 음악을 하는 이 밴드를 반역행위자라고 보았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까르노는 “그 잘난 원조 갖고 꺼져 버려라” (“Go to hell with your aid”)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은 말레이시아가 유엔 회원국이 되자 격분한 수까르노가 인도네시아를 1965년 1월 7일 유엔에서 탈퇴시키면서 국가의 위상은 추락 위기에 놓였다.

비동맹운동 회원국들도 여러 파벌로 분열되면서 반서방 외교정책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국가들이 줄어들자 수까르노는 언젠가부터 비동맹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그는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보다 살갑게 접근하며 중국, 북한, 북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북경-평양-하노이-프놈펜-자카르타축’이라 명명했다. 인도네시아가 1965년 1월 ‘제국주의가 편만한’ 유엔에서 탈퇴한 후 수까르노는 유엔에 필적할 국제기구의 설립을 모색하다가 당시 아직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던 중국의 지원을 받아 신흥국회의(CONEFO)라는 것을 발족했다. 마침 소련의 군사원조로 발생

한 막대한 부채에 큰 부담을 느끼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참에 배를 갈아타 점차 중국의 원조를 받으며 그 의존도를 높여갔다. 수카르노는 빈번하게 베이징-자카르타축을 언급했고 이것은 새로운 반제국주의 국제기구 CONEFO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수카르노는 국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진 끝에 1963년 MPRS를 통해 마침내 종신대통령의 직위에 올랐다. 마니폴-우스택과 나사콤에 대해 쓴 그의 저서들은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교과서가 되었고 그의 연설들은 모든 학생들이 암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신문들은 물론 당시 하나뿐이던 라디오(RRI), 역시 하나뿐이던 TV(TVRI)는 ‘혁명의 도구’가 되어 수카르노의 의지를 전파하는 데에 주력했다. 수카르노는 새로이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서부이리안(현재의 서부파푸아)의 수도를 그의 이름을 따 수카르나뿌라(Sukarnapura)라 명명했고 당시 칼스텐즈 피라미드라 불리웠던 인도네시아 최고봉을 수카르노봉이라고 개명하는 등 자신에 대한 우상화작업도 시도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의 통치권력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중요한 두 기둥인 군과 공산당이 서로 반목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언제 붕괴할 지 모르는 위태로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군과 민족주의자, 그리고 이슬람그룹들은 수카르노의 비호를 받으며 빠르게 세를 키워가는 공산당에게 위협을 느꼈고 인도네시아의 공산화가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 공산당 PKI는 1965년 당시 중국과 소련을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산당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350만 명의 당원들을 거느렸고 특히 중부자바와 발리에서 그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당원 외에도 청년행동



수바르조 준장

대원 300만 명이 그 주변을 떠받쳤고 35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노동조합운동과 9백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인도네시아 농민전선도 사실상 공산당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 외에도 여성운동(Gerwani)과 문인 및 예술인 조직, 문학운동까지 감안하면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전국에 2천만 명이 넘는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192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현대사 속에서 좌충우돌하던 천덕꾸러기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마침내 가장 강력한 정치정당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마디운사태와 같은 반란행위로 낙인찍힌 민족 반역자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선 정권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1959년 7월 수카르노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초월하는 대통령령을 세워 국정을 통제했는데 PKI는 그런 수카르노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 시기에 수카르노는 군장성들을 승진시켜 주요 보직에 배치하면서 군에게도 힘을 실어 주며 공산당과 경쟁하여 세력균형을 이루도록 했고 교도민주주의는 그 세력균형 위에서 있었다. PKI는 교도민주주의를 찬양하면서 민족주의와 종교, 공산주의를 포괄하는 나사콤 체제를 제창한 수카르노를 칭송했다. 이렇게 현존하는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세를 불려가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무산 계급 프롤레타리아의 봉기에 초점을 맞춘 종래의 공산주의와는 사뭇 다른 접근방식을 보였다.

다음호에 계속



신탁을 활용한 자산승계방안 세미나

재인도네시아는 절세 목적의 자산승계에 관심이 있으신 재인니 한인기업 및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신영 & KPMG와 함께 「신탁을 활용한 자산승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I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22. 7. 14.(목) 14:30~17:00
- 장 소 :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층)
※ Jl. Jend. Sudirman SCBD Lot 9, 퍼시픽 플레이스 서문에서 도보 3분 거리
- 신 청 : 7. 5.(화)까지 아래의 접수 링크로 선착순 신청
※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 수 : <https://forms.gle/pAHkPuc6gYARmQjh9>
- 주 관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문 의 : 한인회 사무국 021-521-2515 / innehaninhoe@gmail.com
- 사전홍보영상 : <https://youtu.be/S8VnY-9p7Vs>

II 세미나 일정(안)

- 14:00~14:30 참가자 등록
※ 필요시, 래피드 테스트 실시
- 14:30~14:40 개회 및 인사말씀
- 14:40~15:30 강의1. 신탁의 개요 및 활용방안
- 15:30~16:20 강의2. 한국의 상속세 · 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
- 16:20~17:00 폐회 및 질의응답

본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을 준수하여 진행되므로
모집 인원 등 세부사항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사회 뉴스)

조코위, 메가와티와 불화설 일축...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와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이 “(메가와티는)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2024년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조코위 대통령은 간자르 뿌라노위 중부자바 주지사를 염두해두고 있는 반면, 메가와티 총재는 친딸인 뿌안 마라하니 국회의장을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달 중부자바주 마글랑에서 열린 조코위 지지자 단체인 프로조(Projo, Pro Jokowi) 행사에서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좋겠다는 의중을 드러내면서 메가와티 총재와의 관계가 급랭했다.

메가와티는 간자르를 자당의 대선 주자로 지명하는 데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자신의 친딸인 뿌안 마라하니 국회의장을 후보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자르 주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뿌라보위 수비안또 국방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나타났다.

메가와티 총재의 친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이 주창한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인 ‘뽀짜실라의 날’(Hari Lahir Pancasila) 행사가 지난 6월 1일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메가와티 총재가 조코위 대통령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자, 불화설이 확산됐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7일 대통령궁에서 ‘국가이념 뽀짜실라 부흥청’(Badan Pembinaan Ideologi Pancasila) 최고지도자로 메가와티 총재를 2018년에 이어 다시 추대하면서 두 사람간 불화설이 진정됐다.

이어 8일 열린 별세한 메가와티 총재의 남편인 파우픽 끼마스의 이름을 딴 이슬람사원 아트-파우픽(At-Taufig) 개막식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메가와티 총재가 나란히 앉아 두 사람간 불화설을 진정시켰다. 남부자카르타 렌땡 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중앙당사 내 아트-파우픽 사원이 세워졌으며, 앞으로 중앙당사는 투쟁민주당 연수원으로 사용된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메가와티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면서도,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불편한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메가와티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과 관계는 “매우 원만하다”며, 불화설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민주당은 조코위 대통령이 2005년 중부자바주 수라까르마(솔로) 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 이어 2014년과 2019년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까지 강력한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 아르야 페르난데스 연구원은 “두 사람(메가와티와 조코위)은 각각의 목표를 위해 상호의존적이다”며 “조코위에게는 그의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국회 2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투쟁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고, 투쟁민주당은 조코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인도네시아인 이름은 두 단어 이상 권장

인도네시아 부모들에게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녀 이름을 두 단어 이상으로 하되, 글자 수는 60자 이하로 하라는 규정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의 구세대 특히 자바족의 경우는 성이 없이 한 단어로 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와 제2대 대통령인 수하르토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신분증(시민권 증서) 이름 등록법을 도입했다. 새 규정은 가독성과 명확성을 위해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은 최소 두 단

어를 포함하고,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서 최대 60자 미만으로 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 국적 및 시민등록사무소(Dukcapil)의 주단 아리프 팍물로 국장은 한 단어로 된 이름이 행정문서를 작성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자녀가 유학을 가기 위해 해외학교에 등록을 하거나 여권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이름을 두 단어 이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텔콤, 국영 영화사 인수 추진

국영 통신회사 텔콤(Telkom)이 국영 영화사(Produksi Film Negara, PFN)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5월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영기업부는 국영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국영기업의 경영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까르띠까 위르조앗모조 국영기업부 차관은 7일 PFN이 느리게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므로 더 큰 생태계인 텔콤의 일부가 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까르띠까 차관은 이날 국회(DPR) 국영기업·무역·투자위원회에서 “PFN이 텔콤 생태계에 합류해 제공한 영화를 텔콤 플랫폼과 인디홈(Indihome)을 통해 스트리밍할 수 있다”

인디홈은 텔콤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텔

콤은 인디홈 외에도 맥스트림(Maxstream) 스트리밍 서비스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텔콤은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와 협력해왔다.

텔콤의 PFN 인수 계획은 스트리밍 업체가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올 1분기에 가입자 20만 명이 탈퇴해 수입 증가세가 둔화됐고, 지난 5월 15일에 직원 150명을 해고시켰다.

CNN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는 올 1분기에 신규 가입자 790만 명을 확보했다.

국영기업부 전문관 아리아 시눌링가는 인수 계획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인수를 마무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 경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WB)이 올해와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에 못 미칠 수 있다는 하방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세계은행이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인도네시아 경제전망(2022년 6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2022년 5.1%, 2023년 5.3%로 유지하지만, 상황이 불리할 경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4.6%와 4.7%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2022년에 4.8~5.5%, 2023년에 5.3~5.9%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기구(OECD)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방 시나리오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신흥국 평균 전망치 3.4%와 2023년 세계 평균 전망치 3%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하빔 랍은 “글로벌 상황을 감안하면...[중략] 동시적이고 광범위한 글로벌 성장 둔화는 인도네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방 시나리오는 경공업과 중공업 같은 자원수출 부문을 제외한 호텔·식당업, 서비스업, 도소매 무역 등 산업 부문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빔에 따르면 하방 시나리오에 가정한 만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신뢰도와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철강 제조 및 기타 기초금속 부문은 2021년에는 글로벌 반등 특히 중국과 미국 덕분에 수요가 상승했지만, 이번에는 하방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다.

하방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시키므로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

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투자와 관련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이 위축되어 자본 유입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둔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빔은 “수요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면 인도네시아은행(BI)이 기준금리(7일물역레포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동시에 정부가 금융 부문에 유동성을 요구하면 민간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방 시나리오보다 더 높아지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성장 부양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보조금 확대를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경제전문가들은 2022년 원유 가격을 배럴당 100달러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2022년에 42.9%로 전망했다. 이는 4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9.09%보다는 높지만 인도네시아 법률에 규정된 상한선 6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 의회는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금을 위한 예산지출 추가분 291조 루피아(미화 190억 달러)를 승인했다. 국가예산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도네시아산 원유가격(ICP)가 정치를 배럴당 63달러에서 100달러로 조정함에 따라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금의 총지출이 443조로 늘었다.

하빔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석유회사 빠르파미나와 국영전력회사 PLN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2021년에 GDP의 0.7%에서 2022년에 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르파미나와 PLN은 석유와 전기를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에 대한 보상금을 나중에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 보고서는 정부지출의 변화 외에도,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해외 수요가 감소하고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입 비용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최근 채택된 조세조화법(Tax Harmonization Law, HPP)과 수출액 증가에 따라, 올해 인도네시아가 GDP 대비 0.2%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빔은 다른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면, 하방 시나리오에서도 경제

가 4.6%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부문은 다소 느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수아하실 나자라 차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수출과 금융시장이 미국과 중국에 연결되어 있어서, 양국의 성장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빔은 또한 국내 물가상승률과 글로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2023년 GDP 성장률이 목표 범위인 5.3~5.9%에 머물 것으로 낙관했다.

인도네시아은행, 기준금리 3.50%로 동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4.2%로 전망됨에도 기준금리인 7일물역레포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BI는 지난 6월 22~23일 이틀 간 총재단 회의를 열어 예금금리를 2.75%, 대출금리를 4.25%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BI는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 3.75%에서 사상 최저치인 3.50%로 인하한 이래 동결을 거듭해왔다.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여러 국가에서 스테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관리와 환율 안정 도모 그리고 경제 성장 부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23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페리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계속 살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5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3.55%로 2017년 12월 이래 가장 높았고, 식음료와 담배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페리 총재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 범위 2~4%를 넘어서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4%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올해 1월호부터 6월호까지 {meN-kan}의 개념을 구조화해 보았는데요. 아래 연습문제를 통해 {meN-kan} 개념을 한번 정리한 후 {meN-i} 접미사 공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아래에 있는 미완성 문장들을 꼭 읽어보세요.
뒤에 무엇이 뒤따라 나올지 상상이 된다면 성공!

Kakak **membuatkan**
Ibu itu **menyenangkan**
Pilot itu **berhasil mendaratkan**
Mereka **menyekolahkan**
Andy **membukakan**
Dokter itu telah **menyembuhkan**
Adik **mendinginkan**
Akhirnya, polisi **memenjarakan**

Rudi **mengeluarkan**
Kamu harus **mengeringkan**
Bulan Juli dan Agustus ini mereka sudah **merencanakan**
Dita **membelikan**
Apakah Anda sudah **mengembalikan**
Mereka akan **memfilmkan**
(출처 : wordwall.net)

♣ 아래 박스에 있는 ①~⑭를 매칭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①rambutnya	②guru pintu	③pesawat dengan mulus
④anaknya dengan mainan	⑤semua isi tasnya	⑥liburan mereka ke Indonesia
⑦ayah teh	⑧kakinya dengan air es	⑨buku yang Anda pinjam?
⑩anak-anak mereka di Australia	⑪pelaku kejahatan tersebut	⑫ayahnya hadiah ulang tahun
⑬penyakit Didu yang sudah menahun	⑭perjuangan hidup pengusaha sukses itu	

[풀이]

▶ Kakak **membuatkan** ⑦ayah teh.

언니/형/누나/오빠가 [아버지에게 차(tea)를 내어 드렸다.]

Dia buatin (aku) teh. 개가 (나한테) 차(tea)를 준비해줬어.

Mau aku buatin teh atau kopi? 차나 커피한잔 내줄까?(Do you want me to ~)

▶ Ibu itu **menyenangkan**

여기까지만 읽으면 문장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긴 해요. 이때 ‘화자(말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로 쓰인다면요. Ibu itu menyenangkan (orangnya). 그 분 정말 재밌어. 사랑스러워. 유쾌한 분이야. 그런데 위의 박스에서 고른다면, ④anaknya dengan mainan Ibu itu menyenangkan **anaknya dengan mainan**. 그 여자분은 아이가 재밌게 놀도록 장난감을 주었다. or 장난감으로 아이랑 놀아주었다. (백락 없이 한 문장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그 아주머니는 장난감으로 아이를 즐겁게 했다 – 좀 이상한 한국어가 되었죠 지역하니까)

▶ Pilot itu **berhasil mendaratkan**

당연히 비행기가 뒤에 따라 나오겠죠? ③**pesawat dengan mulus**

그 조종사는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착륙시켰다. (dengan mulus 부드럽게)

mendaratkan : membuat sesuatu (misalnya pesawat) mendarat

Pesawatnya baru saja mendarat. 비행기가 방금 착륙했어요.

▶ Mereka **menyekolahkan**

너무 쉽지요? 애를 어디로 학교를 보낸다.. 라는 말이 뒤 따라오겠죠.

⑩**anak-anak mereka di Australia.**

▶ Andy **membukakan**

뭔가를 누구를 위해 열어준다- 로 완성되어야 할 것 같네요.

②**guru pintu** 선생님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 Dokter itu telah **menyembuhkan** ⑬**penyakit Didu yang sudah menahun.**

그 의사는 Didu가 수년간 앓아 온 병을 고쳐주었다.

Menahun : v. lama sekali, (tentang penyakit) untuk waktu yang lama (bertahun-tahun); kronis

penyakit kronis 고질병

obat untuk menyembuhkan alergi 알러지를 고치는 약

menyembuhkan luka batin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다

(menyembuhkan 다음에는 주로 질병이름이 옵)

▶ Akhirnya, polisi **memenjarakan**

당연히 뒤에는 범죄자가 나오겠네요. ⑪**pelaku kejahatan tersebut**
마침내 경찰은 그 범죄자를 투옥했다.

Pelaku kejahatan tersebut akhirnya dipenjarakan.

(뒤에 oleh polisi는 보통 나오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서~ 생략)

▶ Rudi **mengeluarkan**

뭘 꺼냈을까요? ⑤**semua isi tasnya** 아 가방에 있는 걸 죄다 꺼냈군요.

기본 뜻 : 무언가를 밖으로 내다

mengeluarkan **dahak** 가래를 뱉다(가래가 나오다)

penyebab oven mengeluarkan **asap** 오븐에서 연기가 나오는 원인

mengeluarkan **peraturan** 규정을 꺼내다? → 규정을 만들다(발표하다)

mengeluarkan **peringatan dini** 조기경보를 발표하다

Super Junior mengeluarkan **album terbaru** 새로운(the newest) 앨범을 내다(발매하다)

mengeluarkan **uang** 돈을 들이다, 쓰다

mengeluarkan **bau badan** 체취를 풍기다

mengeluarkan **isi hati** 속마음을 터 놓다

기본 뜻만 기억하고,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 예시로 공부를 해 두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말로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 Kamu harus **mengeringkan** ①**rambutnya**

▶ Bulan Juli dan Agustus ini mereka sudah **merencanakan** ⑥**liburan mereka ke Indonesia**

▶ Dita **membelikan** ⑫**ayahnya hadiah ulang tahun**

Dita는 아빠에게 생신선물을 사 드렸다. Dita membeli hadiah ulang tahun untuk ayahnya.

▶ Apakah Anda sudah **mengembalikan** ⑨**buku yang Anda pinjam?**

빌린 책을 반납하셨습니까?

▶ Mereka akan **memfilmkan** ⑭**perjuangan hidup pengusaha sukses itu**

그들은 [] 를 영화로 만들 것이다 - 만들 것이냐?

그 성공한 사업가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영화로 만들 거라고?

perjuangan, berjuang 고군분투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싸우다 perjuangan hidup 삶에 있어
어려운 점, 고군분투하는 삶

memfilmkan (영화로 만들다), **membukukan** (책으로 만들다), **mendokumentasikan** (문서화하다)

1월호부터 6월호까지 6번에 걸쳐 meN-kan을 공부했는데 이것으로 {-kan}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 반복이 많이 되어,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meN-i}를 공부한 다음에 {meN-kan}과 비교도 해야 하고, 더 고급으로 가면 {memper-kan}, {ter-kan}도 공부해야 하니까요. 읽기텍스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meN-kan} 단어들도 다음에 한번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번 7월호부터는 {meN-i}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 먼저 {meN-i} 주요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1]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근)을 주다’ 라는 뜻이에요.

☆ **biaya 비용** → **membiayai** 비용을 대다

Seorang pengusaha kaya akan **memberi biaya** pendidikan anak itu.

→ Seorang pengusaha kaya akan **membiayai** pendidikan anak itu.

돈 있는 사업가가 그 아이의 교육비를 댈 것이다.

(예문 출처 : 「Belajar Bahasa Indonesia untuk Penutur Asing」 Tingkat Dasar, INCULS, UGM 2015)

bumbu 양념	→ memb umbui , dib umbui (kasih bumbu, dikasih bumbu)	양념하다
nasihat 조언	→ men asihati , din asihati (dikasih nasihat)	조언하다
nama 이름	→ men amai , din amai 이름을 (kasih nama, dikasih nama)	(지어)주다, 명명하다, ~라고 부르다
tanda tangan 서명	→ men andatangani , dit andatangani	서명하다

[2] 접미사 {-i}가 전치사를 대신할 때가 있어요. {meN-i} 다음에는 위치, 장소, (인물)대상이 따라와요.

Presiden tidak **hadir pada** pembukaan acara kemarin.

대통령은 지난번 행사 개최식에 불참했다.

→ Presiden tidak **menghadiri** pembukaan acara kemarin.

mendatangi (=datang ke)	Selain mengunjungi Prabowo, Agus juga mendatangi rumah Muhaimin. 아구스는 프라보워 집 외에도 무하이민의 집도 방문했다. (mengunjungi = berkunjung ke, mendatangi = datang ke) ※mendatangi + {사람}이 바로 와도 됨
memasuki (=masuk ke)	Memasuki tahun macan air, tentu tidak semua shio akan mengalami ke-beruntungan. 흑호의 해로 접어들었는데, 모든 띠가 운이 좋은 것은 물론 아니다.
melewati (=lewat di)	(오토바이 타는 이야기) Dia sudah pintar melewati turunan yang tajam.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도 잘 내려갈 수 있어.
menemui (=bertemu dengan)	Presiden Jokowi akan bertolak ke Moskow, Rusia untuk menemui Putin. 조코위 대통령은 푸틴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할 것이다.

☞ 나머지 개념과 더 많은 예문은 8월호에서 공부해요

나를 쑥쑥키우는 인니어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a817@daum.net



The Acre(Menteng)



글: 주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이미 본격적인 건기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요새 날씨는 비도 종종 내리고 오락가락하네요... 이번 호에서 소개해 드릴 맛집은 멘헝(Menteng) 지역에 위치한 <The Acre>입니다. 그동안 저도 웬만한 자카르타 맛집은 거의 방문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맛집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식당은 비밀의 화원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요. 식당 외관과 내부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조그만한 식당 입구 문을 들어서면 바로 높은 통창이 있어 햇빛이 쩍악 들어옵니다. 식당 내부로 더 들어가보면 아기자기한 정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별채 느낌의 Private Room이 다수 있어 친구 또는 가족 모임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럼 이 식당의 추천 메뉴는 무엇일까요?

우선, Cheeseburger Quesadillas(110,000루피아++)입니다. 이 곳은 멕시코 음식 전문 식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Triple Cheese Quesadillas, Tex Mex Chicken Quesadillas, Cheeseburger Quesadillas 등 퀘사디아 메뉴가 꽤 다양합니다. 퀘사디아는 토르티야 사이에 치즈, 소시지, 야채 등을 넣어서 구운 멕시코 스타일의 샌드위치의 일종인데요. 이 곳의 퀘사디아가 내용물이 풍부하여 정말 맛있습니다. 아마 좋은 치즈를 써서 풍미가 좋은 듯 해요~ 소스가 일품입니다! 여태껏 자카르타에서 먹어본 퀘사디아 중 최고입니다. 강추합니다!!

그 다음은 Sambal Ijo Bowl(135,000루피아++)입니다. 이 메뉴 정말 맛있습니다! 언뜻 메뉴 제목만 봤을 때는 선뜻 주문이 어려운데요. 한 번 맛을 보시면 계속 생각날 맛입니다. 큐브 형태의 쇠고기 갈비살이 듬뿍 올라간 이 메뉴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기 양이 꽤 많습니다. 고기 자체에 양념이 잘 배어 있기도 하거니와 고기질 자체가 매우 부드러워요~ 또한, 홈메이드 초록색 삼발소스도 적당히 매콤한 것이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 이 메뉴도 강추합니다!!

그리고 Dutch Beef Steak(250,000루피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Sambal Ijo Bowl보다는 가심비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고기 질감이 정말 특이합니다. 처음 씹어보는 쇠고기 질감이에요. 드라이에이징된 쇠고기 안심부위인데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이 메뉴의 특이한 점은 안심 스테이크를 흰 쌀밥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고기, 야채, 밥을 한 끼에 맛 볼 수 있는 메뉴로 한번쯤 드셔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류인 Blueberry Donut(35,000루피아++), Vanila Tart(25,000루피아++), Lemon Tart(55,000루피아++)입니다. 이 식당은 자체 베이커리를 보유하고 있어 따끈 따끈한 빵과 신선한 케이크를 맛 볼 수 있는데요. 여느 디저트가게 못지않게 비건 케이크가 있을 정도로 디저트류 라인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너츠 등 빵 종류는 매우 촉촉한 편이며, 타르트 등 디저트류는 적당한 달달함을 갖춘 편이에요. 이 식당의 디저트를 다 맛보고 싶을 정도로 비주얼도 좋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주말에 시간내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에 좋은 식당이 꼭 한번 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The Acre〉

음식 종류 : 퓨전음식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금 08:00~22:00 / 토

07:00~23:00 / 일 07:00~22:00

주소 : Jl.HOS.Cokroaminoto No.100

Menteng, Jakarta Pusat

※ Google 참고

[인터뷰] 이강현 신임 코참회장 “지상사와 기관 등 회원사 확대·개편”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 KOCHAM)의 회원사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이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지상사, 기관도 다수 참여하는 단체로 확대·개편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라고 이강현 신임 코참 회장이 6월 20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발행하는 한인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후 현대차로 옮겨 3년차가 된 이 신임 코참 회장은 “탈중국화 현상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베트남에 집중했던 일부 제조업종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현지 한인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며 “새롭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코참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킨 송창근 전 코참 회장에게 감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2013년 코참 회장에 선임된 송 전회장은 1993년 코참의 전신인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위원회 사무총장부터 활동하면서 코참의 기틀을 확립하였으며, 그동안 한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해내고, 인도네시아 주재 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한을 작성하여 현지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한인 기업의 권익 보호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왔다”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11월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코참은 이에 걸맞게 한인 기업의 창구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코참은 한인 기업의 대변인은 물론 길잡이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 이라고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이강현 신임 코참 회장과의 일문일답]

재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 최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한국의 첨단산업과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탈중국화 기조와 베트남 정부의 유연성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원하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 가운데 인도네시아 진출을 확정했거나 모색하는 기업들이 많다.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게 되어 현지 한인경제 생태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코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코참의 대응은

— 코참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대사관 등과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기를 기부하고, 한인회의 교민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현지인 직원의 백신 접종을 지원했다.

한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 신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자’를 연결시켜 서로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행정전산화와 시스템화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코참은 빠르게 바뀌는 인도네시아 정책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 및 국세 자문단 제도와 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한인 기업을 도울 것이다.

향후 코참 운영 방안은

－ 그동안 코참의 회원사는 제조업체 중심이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지상사, 한국 정부 출연 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로 확대·개편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미진한 코참의 정관은 개정하고 한인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배 기업인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수석부회장 체제를 2인에서 3인 체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일반회원사가 200여개있는데, 회장단 54개사, 이사 회원사 50개사로 확대한다.

주재국 정부 관련 부처와 소통과 활동 계획은

－ 코참은 2001년부터 국제상공회의소(IBC)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외국인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협력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데 협력을 강화해 한인과 한국 투자기업의 권익보호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요량으로 활동하겠다.

인도네시아 현대차가 현지에서 연착륙했는데, 향후 현지 전략은

－ 최근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핫(hot)한 기업으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현지 미래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식 후 아이오닉5 양산을 시작했고 소형 SUV 크레타도 수출했다. 팰리세이드와 쏘나타 등 다양한 모델을 속속 생산·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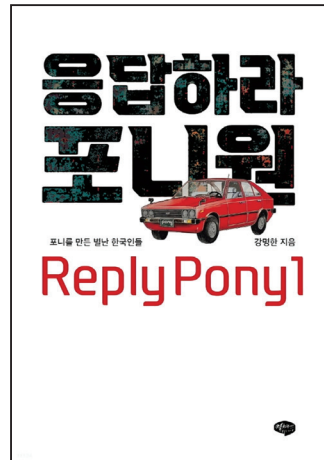
차세대 청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선배 기업인들이 닦은 토대 위에 후배들은 전문성을 함양해 현지에서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도덕성을 잃지 않는 후배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바쁜 일정 속에 건강관리 및 생활 습관은

－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점심은 먹지 않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다. 쏟아지는 일처리를 위해 순간순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이외에도 현지 사회에 기부와 봉사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서평] 아이오닉5와 포니원 〈응답하라 포니원〉 강명한 지음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나는 아직도 전기차와 수소차가 도로에 다니는 것이 신기하다. 1980년대 후반 서울모터쇼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콘셉트카를 보며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2022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전기차가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다. 1997년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수십 년의 시차를 둔 다양한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도로였다. 1950년대 영화에서나 볼 듯한 굴러가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오래된 차와 최신형 벤츠와 재규어가 한 도로에 있는 장면이 무척 낯설었고, 자국 브랜드 자동차가 없다는 것도 이상했다. 1990년대 말 한국은 현대차, 대우차, 기아차, 쌍용차 등 국산 브랜드의 신차들이 도로를 메우던 시기였다. 연두색 포니(Pony)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소나타와 그랜저까지 한국 자동차는 매우 빠르게 발전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공장장을 역임한 강명한의 책 〈응답하라 포니원〉을 읽고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응답하라 포니원〉은 저자가 국산 차 최초의 고유 모델이자 한국 최초 수출 모델인 포니 자동차 프로젝트가 시작된 1973년부터 1980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엔진 부장에서 시작해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1986년 정우사에서 ‘포니를 만든 별난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던 책을, 2022년에 저자의 아들이 조금 내용을 보강하고 현대적인 언어로 편집해 재출간한 책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태동기를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는데, 읽으면서 현장의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고 흥미롭다.

이 책은 1973년 5월 저자 강명한이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사장과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해, 포니의 디자인과 설계, 설비 도입과 설치, 공장 가동과 생산에 이르는 무모하고 험난한 도전을 열정과 근면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성취하는 과정을 그린다. 또 1976년 2월 포니의 국내 판매 개시 후 반응과 대응 그리고 1979년 연간 30만 대 생산 계획을 설계하기까지 과정을 서술한다. 포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최신 유행 스타일이었다.

저자는 포니 출시 후 반응에 대해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의 포니가 거리를 달리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나 싶더니 어느 순간, 그동안 검은색 차만 보아온 사람들의 눈에 참신함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날씬하고 멋진 차’ 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 자평했다.

저자에 따르면, 정세영 사장은 한국에 자동차가 17만 대 밖에 안 되던 1973년에 자동차를 연간 5만 대를 생산해 일부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포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1976년부터 국산 승용차 최초로 포니를 소량 수출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엑셀로 미국에 처음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오늘날엔 전 세계에서 389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대 기업이 됐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자동차와 아이오닉5가 핫이슈(Hot issue)가 되고 있다.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국산 차 최초 고유 모델인 현대차의 ‘포니’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현대차는 자사를 글로벌 자동차회사로 도약시켰던 포니의 꿈을 전기차 시대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아이오닉5에 담았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는 아이오닉5로 전기차 시장을 잡고 내연기관차를 포함하는 전체 자동차시장에서 현재 일본에 있는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로, 2022년 3월 말에 아이오닉5를 출시했다. 지금까지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에 따르면, 2022년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전기차 200대 중 195대가 현대 아이오닉5였고, 1대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98%에 달한 것. 올해 1~5월 누적 현대 전기차 판매량은 333대로 인도네시아 전체 판매량 363대 가운데 92%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의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한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올해 1~5월 기간에 39만6천153대이고, 이 중 일본차의 점유율이 93.1%에 달하지만, 전기차만큼은 현대차가 일본 브랜드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에 대해, 저자는 “자동차는 개인이 보유하는 재화 중, 종종 집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유자에게 안전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동 수단임과 동시에, 나아가 그의 품격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중요한 소유물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또한 “자동차는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속성도 갖고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들은 쉽게 싫증을 느껴버린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체하며 유행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썼다.



자동차 회사의 경영 전략에 대해, 저자는 일본 자동차산업은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며, 첫 번째는 새 차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의 서비스와 부품 판매이고, 세 번째는 중고차 판매라고 썼다. 인도네시아에서 차를 살 때 “일본 차는 중고차 가격이 좋아”라며 선택하는 지점이 설명된다. 또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회사들은 자동차의 월부 판매를 지원해주는 은행과 월부로 차를 사는 고객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신용 보증회사가 서로 공조하여 자동차 판매 시장을 넓혀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86년에 쓴 책인데, 책의 말미에 전기차와 수소차, 더 나아가 컨베이어 벨트가 도로를 대체한다거나 1인용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 새 같은 모습의 이동수단을 예측한다. 이미 전기차와 수소차는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날아다니는 새 같은 모습의 이동수단은 드론과 비슷한 형태의 ‘도심항공-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도로를 대체하는 개념은 미래의 화물수송 수단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언젠가 우리 후대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날이 꼭 올 것이라 믿는다.” 저자는 기술을 내주지 않으려는 외국 자동차회사를 설득하고 새 기술을 외국어로 배우는 어려움을 서술하면서 이처럼 썼는데,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을 보면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019년 11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약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립을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 크레타, 3월부터 아이오닉 5 양산에 돌입했다.

저자는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에서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포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모험에 찬 길은 고달프고, 어렵지만 지루할 겨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극도의 희열일 것”이라며 “나는 나에게 닥친 기회를 움켜쥐기로 했다. 죽자 사자 달려들어 끝장을 보고 싶다는 투지가 생겼다”라고 회고했다. 그리고 멋지게 성공해서 지금의 현대차의 토대를 닦았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더 나아가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도전이 포니 프로젝트처럼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



즈빠라 한인회관 개관식

즈빠라(Jepara) 한인회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개관식"이 지난 6월 9일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박태성 대사님, 이윤석 영사님, 박재한 인니한인회장님, 채 환 중부자와 한인회장님 그외 봉제, 신발 관련업체 관계자분들과 많은 교민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적인 개관식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외 인니 현지인(군수, 경찰서장, 군.이민청 주요관계자)들도 동참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즈빠라 교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즈빠라 한인회는 지역한인들의 등대가 되어 소외된 교민들과 어려운 지역 현지인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인니 모든 교민들과 소통하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공: 즈빠라 한인회)





전민식 회장



이인규 총영사와 대상 송현수 (11학년)

6월 25일 오전 10시, 인도네시아 롯데쇼핑 에비뉴 콘서트홀(The Ice Palace)에서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전민식)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네시아지회(회장 이세호)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한국학교 학생들, UPI 반둥교육 대학교(디딘삼수딘 한국어학과장)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식전 공연으로 UPI 반둥교육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축하의 의미를 담아 K-POP 댄스를 선보여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국을 기념하는 기수단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전민식 회장이 6.25 전쟁의 아픔과 남북 대치 상황의 현실을 말하며 6.25를 상기했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그 후로 이인규 총영사의 치사, 박재한 한인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이세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도네시아지회장의 축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다음으로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발표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초등부 최우수상으로는 6학년 신정훈, 중고등부 최우수상으로는 11학년 박유민, 그리고 대상 수상자로는 11학년 송현수 학생이 수상했다.



박재한 한인회장, 최우수상 박유민(11학년), 신정훈(6학년), 이강현 코참회장

위 수상자들은 특별히 무대로 나와 자신의 글을 낭독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나라 사랑 글쓰기대회에서 장려상은 수상자는 총 6명으로, 초등부에는 정윤영(5학년), 장연우(4학년), 그리고 박서운(4학년) 학생이 수상했고, 중고등부에는 박주형(11학년), 홍지민(11학년), 그리고 한어진(11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우수상 수상자는 총 4명으로, 초등부에는 문수연(6학년), 최혜원(5학년), 그리고 중고등부에는 박소민(11학년), 주연서(11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특히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자 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이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생기자 임서영 JIKS 10)

• 중부자바 주지사와의 대담 •



2022년 6월 9일, 중부자바 주지사 관저(스마랑 소재)에서 박태성 대사와 중부자바 한인회 채환 회장을 비롯하여, 박재한 한인회장, 이강현 코참회장이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 주지사 을 만나 대담을 나눴다.

간자르 주지사와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방문단은 중부자바 주정부와 한인사회가 긴밀한 유대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하면서 지역 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제품 수출 적체 문제) 개선, 스마랑 북부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 안정적인 외국인 정주 환경 마련 등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채 환회장, 박태성대사, 간자르주지사



<중부자바 한인회 배석자>

－ 채 환 회장/김화룡 수석부회장/방현식 이사(삼경)/이세중 이사(화승)/최 환 팀장 (LG엔솔)
류중범 사무총장

<중부자바 주정부 배석자> : 간자르 프라노워 (Ganjar Pranowo) 주지사

－ 마르소피 (Masr Sofi 협력사무처장) / 랏나 카우리 (Ratna Kawuri) 지역 투자청장
우스와툰 (Uswatun) 지역 교육청 장 / 주니타 (Junita) 국가개발기획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대사관 및 외부 배석자>

－ 박태성 대사 / 이윤석 영사 / 정근용 상무관 / 민선희 연구관
－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 이강현 신임 코참회장

(제공: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Dua Kacamata / 두 개의 시선

무지륜(Mujirun)

헬렌 하르소노(Heylen Harsano)

이번 7월호에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지폐 속 인물을 그렸던 주인공, 무지륜(Mujirun) 씨를 인터뷰 했어요.

무지륜(Mujirun) 씨는 족자카르타에 있는 예술대학교(ISI)를 다니고 있던 시절인 1979년부터 인도네시아 조폐공사에서 일했다. 지폐를 만들 때 안보등급이 가장 높은 일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한다.

올해 63세인 무지륜 씨는 젊은 나이로 입사해 사지륜(Sajirun)이라는 대선배의 보조 역할을 하며 일을 배웠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하다. 무지륜, 사지륜.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배웠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무르토요(Murtoyo)라는 선생님께 배웠다. 첫 작품을 팔았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냥 용돈 좀 벌어 보려고, 와양(wayang)을 그려서 팔았다. 예대를 다니던 중에 조폐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유학을 보내준다는 제안 때문이었다. 월급도 물론 적지 않았다. 그때 당시 한 달에 5만루피아였다. 그 정도면 만족했다. 당시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받았던 월급이래 봤자 한 달에 2만루피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길로 자카르타에 왔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미술 교육을 다시 받았는데, 유학도 그때 가게 되었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말레이시아에서 교육을 받았다. 네덜란드 유학출신의 스승으로부터 화폐 그림을 그리는 법을 2년간 배우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예술대학(ISI)과 반둥공과대학(ITB)에서도 조폐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뒤에도, 3년이 지나서야 화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5000 루피아에 있는 트쿠 우마르(Teuku Umar)라는 영웅을 그리게 되었다.

정말 어려운 테스트를 거쳐야만 그릴 수 있는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회사에서 먼저 5명 후보에게 펜 드로잉(pen drawing)으로 그림 작업을 하게 했다.

그 다음에는 결과물을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 임원진들에게 보내 동의를 받아 무지륜 씨의 작품이 선택되었다. 화폐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가벼운 일도 아니다. 보안 수준이 꽤 높은 데다가, 가능한 한 복잡하게 그려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려야 한다.

무지륜 씨는 그 동안 13개의 인도네시아 화폐를 그렸다.

Sisingamangaraja XIII 영웅 (1987년 발행 Rp 1.000)	Cervus Timorensis 사슴 (1988년 발행 Rp 500)	Gunung Anak Krakatau 화산 (1991년 발행 Rp 100)
Gunung Kelimutu (1991년 발행 Rp 5.000)	Ki Hajar Dewantoro (1998년 발행 Rp 20.000)	Paskibraka (1999년 발행 Rp 50.000)
Kapitan Pattimura (2001년 발행 Rp 1.000)	Pulau Maitara & Tidore (2001년 Rp 1.000)	Tuanku Imam Bonjol 영웅 (2001년 발행 Rp 5.000)
Oto Iskandar Di Nata 영웅 (2004년 발행 Rp 20.000)	I Gusti Ngurah Rai (2009년 발행 Rp 50.000)	

<무지륜 씨의 주요 작품>



화폐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엿보자. 처음에는 강판에다가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 조각을 한다. 실수 없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는 단계다. 조각도와 돋보기를 사용하는데,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땐 축이 달린 펜을 사용한다. 선을 다양하게 그려서 명암과 그림자, 여러 가지 각도를 구분한다. 한 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아차! 실수라도 하면 원본이 훼손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언뜻 보면 조폐 방식이 조각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조폐 기술은 훨씬 더 복잡하다. 화폐 그림을 그리는 작업 시간은 3-4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얼마나 고된 작업일지 상상조차 되질 않는다.

무지륜 씨가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작품 중 하나는 “Pak Harto Mesem” (하르토 대통령의 미소)” 이다.



당시 담당 화가를 선발하기 위해 사내에서 경쟁도 치열했을 뿐 아니라, 해외 화가와도 실력을 다투어야 했기 때문이다. 무지륜 씨의 하르토 대통령 스케치와 호주 출신의 화폐 화가가 최종 경쟁후보로 올랐다. 국가사무처(Sekretariat Negara)에서 두 사람의 작품을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사실 무지륜 씨는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게 될지는 몰랐다. 그의 작품은 1995년에 발행된 5만 루피아권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무지런 씨의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화폐 주인공들의 얼굴이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냐고 비밀을 물었더니, ‘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요판화(engraving)라는 화폐 제작 기법은 정교함이 생명이다. 조폐 화가가 많지 않은 이유다. 섬 없이 혼련하고, 감을 기르는 방법밖에는 없다.

인도네시아 화폐에는 관광지도 많이 소개된다.

<p>반다 네이라(Banda Neira) (Rp 1000 최신발행권)</p> <p>말루쿠 섬 중부에 있는 ‘작은 천국’으로 불리는 곳. 육두구(Pala, nutmeg)가 나는 곳으로 유명한 이 곳은 유럽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타 초대 대통령의 유배지로 특히 유명하다. 바닷속 세상이 아름다운 곳.</p>	<p>응아라이 시아녹(Ngarai Sianok) (Rp 2000)</p> <p>수마트라섬의 부킷팅기(Bukittinggi) 지역의 남서쪽에 있다. 꼬불꼬불하게 펼쳐져 있는 논과 강을 볼 수 있다. 안개가 걸려져 있을 때 아름다운 장면을 눈에 담을 수 있다.</p>
<p>브로모 산(Gunung Bromo) (Rp 5000 최신 발행권)</p> <p>동부자바를 여행할 때 필수 코스인 이 곳에는 Kawah Ijen이라는 화산호가 있다. 이색적인 일출 장면은 물론, Yadnya Kasada라고 하는 독특한 의례도 볼 수 있다.</p>	<p>와카토비(Wakatobi) (Rp 10.000)</p> <p>다이버들의 천국.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아주 귀한 거북이들도 여기서 볼 수 있다.</p> <p>와카토비(Wakatobi)는 술라웨시통가라(Sulawesi Tenggara, 남동부)섬에 있는 4개 섬을 합친 말이다.</p> <p>왕이왕이(Wangi-wangi), 칼레두파(Kaledupa), 토미아(Tomia), 비농코(Binongko)</p>
<p>드라완 섬(Pulau Derawan) (Rp 20.000)</p> <p>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접경에 두고 있는 섬으로, 인도네시아의 외곽 섬 중 하나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동부칼리만탄의 베라우 군(Kabupaten Berau)에 해당한다. 해양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산호초를 찾는다면 이 곳으로 가길!</p>	<p>코모도 국립공원(Taman Nasional Komodo) (Rp 50.000)</p> <p>코모도 국립공원은 코모도섬(Pulau Komodo), 린차 섬(Pulau Rinca), 파다르 섬(Pulau Padar), 이렇게 세 개 섬으로 구성돼 있다.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라부안 바조(Labuan Bajo) 마리나에서 스피드 보트를 타고 이동한다. 전 세계에 3곳 뿐이라는 핑크빛 모래사장이 여기에 있다.</p>
<p>라자 암팻(Raja Ampat) (Rp 100.000)</p> <p>세계 10대 다이빙장소에 선정된 라자 암팻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다양한 해양 생물 중으로도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는 곳이다. 파푸아 소롱(Sorong)에서 라자 암팻으로 2.5 km 정도 배로 이동한다.</p>	



Banda Neira



Wakatobi



Raja Ampat



Pulau Komodo



Derawan

무지론 씨에게 회사는 학교이자 생계를 꾸리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는 50세가 되던 해 조기 퇴직을 했다. 남은 시간을 개인 작품생활을 하는 데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린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그림은 2500만 루피아에 팔리기도 했다.

화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지 않다. 열 손가락도 채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든 한국에서든 가치 있는 일은 찾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번역: 민선희)



적도에서 일가를 이룬 '아랍의 왕자'를 꿈꾸던 소년(2)

지난 호에 이어

원작: 박창열, 작가: 박유민(JIKS 10)

박가(家) 네 가족(1) - 박창열 주니어, 박유민의 탄생

2005년 9월 3일, 산산한 가을의 선물처럼 창열과 승희의 딸 '유민'이 태어났다. 창열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유민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고, 출산 당일 창열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점이다. 창열이 유민 엄마에게 또 다시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신비로운 생명체인 유민을 처음 품에 안던 날, 창열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아기에게 물었다.

“성격 급한 우리 아기 유민아, 출산일에 태어나지 그랬니?”

유민이를 양육하면서 창열은 딱히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 딸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창열의 가족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울면 어떡하나, 인도네시아에서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했지만 쓸데없는 우려였다. 아기는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인도네시아에서 더 잘 먹고 잘 잤다. 음악처럼 사랑거

리는 적도의 바람을 자장가 삼아.

창열 부부는 유민이가 한창 말을 배울 때 영어나 인니어 애니메이션이나 유아 프로그램을 보여주곤 했다. 물론 뽀로로 같은 한국 프로도 틀어주었다. 노래나 동요도 틀어주며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높이려 노력했다. 그 덕에 유민이는 한국어보다 영어, 인니어를 먼저 배웠다. 그 뒤 한국어 말문이 트이게 하기 위해서 유민과 유민 엄마를 한국에 보냈다. 몇 달 뒤, 창열은 한국에서 돌아온 유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꽃잎처럼 하늘거리는 입술로 유민이 내뱉는 말을 들으며 창열은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런 아이가 대견해 책을 더 많이 읽어주며 친밀감을 쌓았다.

창열은 유민이가 공부보다는 사회성이 넓고 세상을 보는 안목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바란다. 그래서 창열 부부는 유민이를 키우면서 인성, 예절, 행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것 또한 독이 될 수 있기에 유민이가 조금 크면서부터는 이 점을 중점으로 가르쳤다. “다른 사람들을 믿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해.” 이 말은 창열 부부가 유민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창열은 믿는다. 품 안의 딸 유민이 잡초처럼 강한 끈기와 근성을 가진 아이로, 어떤 비바람에도 끄덕 없는 아름답기로 자라고 있다고.

“유민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도 창열이 유민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친한 지인들과 대화를 하든 유민의 자량이 끊이질 않는다. 새로 만나는 사람에겐 자신의 딸이 이런 아이라며 자량을 하고 지인들에겐 새로 업데이트된 딸의 성과에 대해 자랑한다. 오죽하면 주위 사람들이 “부부가 아주 딸 바보야, 딸 바보!” 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진짜 유민이가 자랑스러운 걸.

“유민이는 항상 자랑스럽지.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스스로 뭔가 성취했을 때 음... 예를 들어서 대회에서 상을 타거나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대견해. 그리고 유민이가 9학년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에서 최연소로 수상을 했는데 그때의 감정은 잊을 수가 없어!”

어찌겠는가, 박창열은 딸바보인 걸.

박가(家) 네 가족(2) - 내 편

“오늘도 수고했어, 창열아. 내일도 세상과 부딪쳐 보자!”

창열이 사회생활로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가족이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집에 도착해서 현관 문을 열면서부터 사라진다. 유민엄마의 잔소리, 유민이가 나를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 집사를 반기려 나오는 고양이 목의 ‘딸랑딸랑’ 방울소리.

현관문을 넘어서면 오롯한 내 편이 그를 맞이한다.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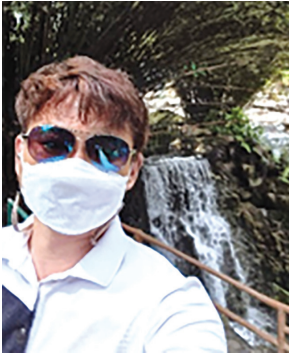
흔데레(짹짹맛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같으면서도 나를 존중해주는 아내, 창열의 삶의 원동력 유민, 자신을 반기는 고양이들까지. 창열은 이들을 보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창열이 자신도 ‘내 편’에 속하기에 더욱 든든하다.

“나에게 가족이란, 나의 힘이 되는 삶의 원동력이며 나의 자랑거리이다.”

창열은 나이를 먹는 것이 정말 싫다. “이제 50이지만 눈도 침침해지고 아침잠도 없어지고 나이만 든다.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은 딱 한 가지, 세상 사는 지혜와 경험이 풍부해져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유민이 놀리기, 가장 행복한 일은 내가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는 순간이다.” 나이를 먹는 일을 푸념하면서도 결국은 가족으로 끝나는 그는 가족바보이다. 더 나이를 먹으면 반둥이나 수방처럼 시원한 시골에 가서 자연과 함께 노후생활을 즐기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이다.

한국서 4,510 km떨어진 적도,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넘게 걸리는 인도네시아.

믿을 사람이라고는 가족뿐인 이곳에서 한때 아랍의 왕자가 꿈이었던 박창열의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사랑하는 유민이에게
 항상 건강하고 빠르게 살아줘서 고마워.
 너는 아빠의 큰 행복이자 자랑이야.
 아빠는 언제나 너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요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지?
 가끔 아빠에게 짜증도 내지만,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네 속마음이 진짜로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지만 짜증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꿈을 찾아서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단다. 아빠가 항상 우리 유민이를 응원하고
 있어! 사랑한다, 유민아.

영원한 너의 북두칠성, 아빠가

작가의 말

<부모님 자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슈퍼 히어로’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무척 기뻐다.

항상 커 보였던 아빠가 ‘아랍의 왕자’를 꿈꾸고 있을 줄이야! 아빠가 왕자라면, 아빠 딸인 나는 아랍의 공주?
 아빠에게도 이렇게 귀여웠던 시절이 있었구나. 글을 쓰는 내내 자꾸 웃음이 났다.

아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을 빌어 자서전으로 쓰려니 힘들었지만 내가 모르는 어린 시절 아빠의 모습과 엄마 아빠의 첫 만남부터 결혼, 나를 양육한 일들을 정리하는 일은 감동적이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더 열심히 산다는 것도.

우리 아빠는 나에게 정말로 ‘왕자님’ 같은 존재이다.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나만의 ‘북두칠성’.

친구처럼 다정하고 나와 ‘붕어빵’ 처럼 닮은 우리 아빠.

태어나 보니 아빠가 박창열인 행운을 안고 태어난 박유민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막의 모래알처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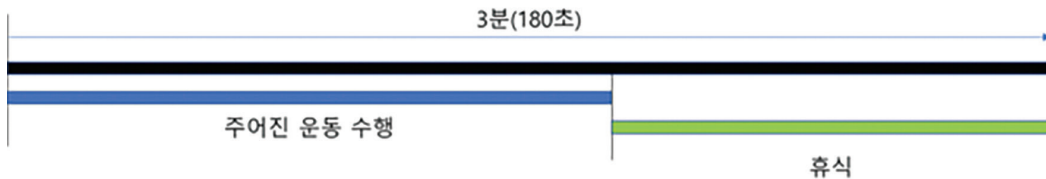
홈트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체육관 운영 중)

이 달에는 E3MOM 이라는 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3MOM은 Every 3 Min. On the Min. 이라는 용어로 주어진 운동을 3분내 최대한 빨리 수행을 한 후 3분이 끝나기 전까지 휴식을 한 후 다시 3분동안 주어진 운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주어진 운동을 빨리 수행하면 할수록 휴식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번 달 운동은 E3MOM 운동을 5 회 실시하며 운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 Air Squat
- 20 Push Up
- 15 Sit Up
- 10 V-Up

1. Air Squat 25개



-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후 뒤꿈치에 무게를 싣고 엉덩이를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밀면서 내려간다.
- 스쿼트 시 엉덩이는 무릎의 높이보다 약간 더 내려가도록 한다.
- 스쿼트 자세에서 몸의 무게는 뒤꿈치에 약 80% 가량 싣는다.
- 스쿼트 후, 다시 일어나면 1개이다.
- 동일한 동작을 25개 정확하게 수행한다.

2. Push Up 20개

-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뒤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면 준비 완료
- 가슴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간 후 양팔을 밀어 다시 준비단계 자세처럼 만들어주면 1개이다.
- 이렇게 20개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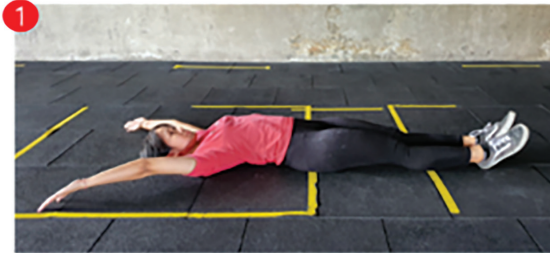
3. Sit Up 15개

앉은 자세에서 양발을 모으고 준비. 이후 상체를 뒤로 제치면서 양손을 머리 위 바닥을 터치 후



다시 준비자세로 이동한다. 이렇게 15개 수행한다.

4. V- Up 10개



- 양팔을 머리위로 올리고 다리를 뻗은 상태로 준비한다.
- 복근에 힘을주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다리를 들어올려 손끝이 발가락 부분을 터치한다.
- 손끝이 발가락을 터치 후 다시 준비자세로 돌아오면 1개 이다.
- 이 동작을 반복하여 10회 수행한다.

위의 4가지 운동을 최대한 빨리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한 후 다시 3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운동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5회를 수행하면 하체, 코어, 상체 등 골고루 운동이 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생활을 항상 응원 하면서 이번 호의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ID “pac1jch” 또는 전화번호 081 338 964 258 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똑,똑! 안녕하세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부회장 이우열 KB BUKOPIN 신입 은행장



2022년 6월 15일, 한인뉴스편집팀은 자카르타 뻬조란(MT Haryono)에 위치한 KB Bukopin 본사에서 이우열 은행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5일 KB Bukopin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우열입니다.

저는 KB국민은행에서 전략기획부장, 북부지역영업그룹대표, IT그룹대표를, KB금융지주에서 HR총괄 부사장과 전략총괄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직 인도네시아의 많은 것들이 낯설지만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나마 한인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2. 인도네시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느낀 점은?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국민들 얼굴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난 주 수마트라 빠당 장례식에 가서 한국과 다른 문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맛있는 음식에 행복함도 느꼈습니다.

KB Bukopin 은행 또한 서울에서 서류로 확인했던 것 보다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직원들의 열정과 역량이 기대 이상이어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3. KB BUKOPIN 의 현재 상황 및 다른 은행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2020년 인수 이후, 부실자산정리, 경영정상화 등 시급한 과제 해결과 동시에 KB국민은행의 역량을 KB Bukopin은행에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 6월 2일, 한인회를 방문
하여 박재한한인회장과 간담

“

넓은 땅에서 오는 여유인지 항상 웃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싶다

”

특히, 보다 믿음직한 은행이 되기 위해 부실자산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B Bukopin 은행은 타 한국계 은행과 차별화되는 인도네시아 전국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320개 영업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캐피탈, 데이터시스템 등 KB금융그룹 계열사와 함께 One KB in Indonesia 를 구현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은행이 되고자 합니다.

4. 앞으로의 계획과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KB Bukopin 은행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해 Turnaround를 조기에 달성하고, 2023년 까지 Digital Transformation을 완료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사랑받는 은행이 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KB부코핀은행의 Fitch社 신용등급은 AAA이며 이는 BCA 등 인니 내 어느 은행보다 높은 신용등급입니다. KB부코핀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생각하시고 믿고 거래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한인사회의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현지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조언을 듣고자 하며, KB Bukopin 은행이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B Bukopin은행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KB금융그룹 계열사 모두 한인사회에 보다 나은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인 여러분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낮선 느낌들의 정체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jinn.kim@outlook.com



가경을 꿈꾸던 설렘은 오만이였다.

후끈하고 밀치는 열기, 솜사탕 엉기듯 온몸을 끈적하게 에워싸며 다가오는 낮선 느낌들, 시신을 태우는 갠지스 강가의 뿌연 연무처럼 후각을 자극하는 누릿하고 음산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인가! 놀라움에 참새의 가슴처럼 작아진 낮선 자의 입경, 거대한 섬나라 적도의 텃세는 처음부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80년대 초 문명이 소외된 듯한 인도네시아 서부 순다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 살벌한 태양 빛에 못 매를 맞아 숨을 할딱이는 숲 속에 사람들의 체구는 왜소하며 햇빛에 그을린 얼굴은 구릿빛에 짙고 질퍽대는 시골 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원시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삼발 트라시 (일종의 젓갈 무침), 다운 썬쿱 (나무 잎사귀)를 반찬 삼아 푸슬푸슬한 밥알을 세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입안으로 몰아넣으면서도 환하게 웃는다. 꿈은 전제되지 않고 생명 유지에 소박한 사랑과 생식을 위한 작은 도구일 뿐, 욕심에 물 들지 않은 순박한 원시의 모습대로 열대의 일상은 머물러 있었다. 대낮의 살을 찌르는 더위를 피하여 망고 나무 그늘과 바나나 밭을 돌아다니며 떡엄떡엄 숨어있는 그들의 삶과 조우한다.

낮은 지붕은 영성한 기왓장으로 겨우 비를 피할 정도이고 담 벼락은 대나무를 쪼개어 밭을 엮듯이 막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안 쪽을 차단할 정도이다. 부엌은 나무로 불을 때서 음식을 익히느라 그을림으로 침침하다. 썩 웃으며 상냥하게 말을 건네는 촌민들의 일그러진 미소,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시절 내 어릴 적 모습이 거기 서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온종일 허름한 와룽 (구멍가게)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숲 속에 어둠이 찾아 들면 별레처럼 기어 나와 불빛의 유혹에 이끌려 유흥장을 찾아 나선다. 자이퐁안 (서부 순다 지역의 민속공연) 공연이 열린다고 온 동네가 야단 법석이었다. 바나나 밭에서 불을 본 날개미들이 꾸역꾸역 쏴아져 나오고, 공연장으로 가는 길가엔 페트로막 (석유등)을 환 하게 밝힌 행상들이 줄지어 서서 모여드는 군중 들에게 미끼를 던진다. 사뻐 (꼬치구이) 장수, 나시고랭 (볶음밥), 박소 (고깃국물에 생선 새알심)...

밤이란 그들에게 소낙비 같은 천국이였다. 활동을 옥죄는 더위의 사슬에서 끄꽂 았다가 도망쳐 나온 무리들이 산처럼 무대를 에워싸고 공연장엔 누릿한 담배 연기와 땀냄새가 진동한다. 숲 속의 적막을 지키던 별빛은 애당초 혼비 백산하여 자리를 내어주고 어디론가 슬쩍 숨어 버렸다. 우뢰와 같은 타악기의 전주곡이 질풍처럼 조용하던 숲 속의 구석구석을 휩쓸고 지나간 뒤 까만 얼굴에 동공들은 어군처럼 가로 세로 움직이며 반짝인다. 악사가 막대기를 번쩍 쳐들자 봉고의 (장고의 일종) 입이 열리고 둔탁하게 부르짖는 소리.

뚜루루루 푹푹- 쿵딱딱 쿵딱딱 쿵쿵딱딱 쿵딱딱!

누군가의 출연을 예감하는 징소리가 울리자 전통 복을 화려하게 차려 입은 무희들이 하나 둘 손을 합장하며 등장한다. 어떤 흠결도 블랙홀처럼 삼켜버릴 듯이 유효한 짧은 것들의 질리지 않는 몸짓! 얼굴이 작게 보이는 왕비 머리, 반쯤 열린 가슴에 터질 듯한 초록빛 저고리 바틱 천을 둘둘 말아 인어처럼 잘룩한 허리, 휘젓는 양팔의 끝에서 하얀 손가락은 해파리처럼 하늘거리고 풍만한 엉덩이는 실룩실룩 앞으로 뒤로 옆으로 격렬하게 떨며 원초적 본능을 훔내 내다가 얼굴은 가우똥 지우똥 이쪽 저쪽을 번갈아 바라본다.

휘익!

암컷이 흘린 시그널에 안달이 난 수컷들이 내지르는 괴성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축제의 불길은 무대에서 객석으로 옮겨붙어 모닥불처럼 타오른다. 담배를 입에 물고 꼬깃돈을 꺼내든 사내들이 다짜고짜 무희에게 달려들어 배배 꼬는 허리를 들이댄다.

중년의 사내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어우러지는 춤의 도가니.

목이 터져라고 흥을 부추기는 악사들의 추임새, 흥건히 젖은 땀과 누릿한 정향 담배 냄새의 향연, 캄캄한 숲 속의 적막을 가르며 봉고 소리는 동이 트는 새벽을 향하고 있었다.

그칠 줄 모르는 열대의 낭만!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누릿하고 음산한 적도의 향기가 거기 있었다.

MZ 시대의 유교(儒敎) 보이를 응원하다

이병규/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yakmo2@hotmail.com



우리 사무실에는 A씨라는 한국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 2년 전 쯤 코로나가 막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곳 자카르타로 발령 받아서 나온 본인에 나이는 40대 중후반에 딸 둘이 있는 전형적인 중년의 직장인이었다. 본사에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을 두루 담당한 영업 전문 인력으로 인도네시아 장사 한번 잘해보라고 보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도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고, 몇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운 좋게 위기를 잘 넘겨 본인 스스로 꽤나 자부심이 높다. A씨는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경상도 억양이 느껴지는 게 경상도 어디쯤이 고향인 것 같은 데 아무튼 본인은 죽어도 서울이 고향 이란다. 그럼에도 경상도 어떤 지역 이야기가 나오면 술술 나오는데 참... 사람들이 의아하게 어찌 서울 사람이 경상도에 대해 그리 잘 아냐고 물으면 친척들이 그 지역에 살아서 그렇다며 어물쩍 넘어갔다.

그럼에도 롯데 야구에 진심인 서울 사람 A씨가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대충 스토리가 이러하다. 르바란이 막 끝난 몇 주 전, 출근한 지 한참 지나 9시가 다 되기도 연휴의 여흥이 가시지 않았는지 직원들이 계속 떠들고 있길래 내가 한마디 할까 했는데, 서울 사람 A씨가 뜬금없이 “Harap tenang aja di kantor! (사무실에서 좀 조용히 해!)” 라고 버럭 한 것이었다. 딱히 조용히만 지낸 사람은 아니었으나 지난 2년간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A씨였는데 현지인들에게 냅다 고성을 내지른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직원 B의 대응이 가관이었다.

“Pak, Sekarang Kami kerja (우리 지금 일하는건데요)” 라며 되바라지게 대꾸를 한 것이다. A씨는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직원(B라고 하자)에게 당장 자기 자리로 오라고 또 한번 버럭 했다. 아침부터 르바란 휴무의 후유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는데 이런 꿀 잤을 선사받다니. 아주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내 자리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관전키로 했다. 굳이 내가 나서서 말려야할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직원 B가 A씨 자리로 꾸물꾸물 갔고 A씨는 다가오는 직원 B에게 어떻게 Boss한테 그런 소리를하냐고 무슨 업무를 했길래 사무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야 하는거냐며 시끄럽게 할거면 회의실로 가라고 버럭 했다. 덧붙여서, 본인 앞에서 바지춤에 손 꼽고 있는 꼴을 못보겠으니 당장 빼라고 소리를 한번 더 질러줬다. 직원 B는 그 앞에서 당돌하게 A씨도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왜 나만 뭐라고 하냐며 대들었다. 거기서 더 폭발한 A씨는 직원 B를 데리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이 떠나 갈 듯 고성인 오갔는데 나와 몇몇 사람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회의실에 들어가서 둘을 말렸다. 각각 따로 불러서 직원 B는 현지인 Head가 한국인 A씨는 한국인인 내가 따로 달래면서 어떻게 사건은 끝이 났다. 오후에 현지인 Head가 와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잔다. 직원 B가 젊어서 그렇고 나이 먹은 우리가 낡대처럼 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말이였다.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이건 젊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이고 직원 B는 자기보다 한참 높

은 직급의 A씨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한 거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식의 꼰대 Frame에 자꾸 가두려는 사람들의 논리가 참 불쾌했다. 직급과 나이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하지 않나? 서로 걱정 선에서 “알았다” 라고 하고 끝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는데 본사에서 메일 한통을 받는다. 요약하자면, 우리 회사는 올해부터 사내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그 동안의 회사 내 직급을 모두 없애고 이름 뒤에 “~님” 을 붙이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XX 직급님” 이 아니라 “XX 님” 으로 불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러 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직장 내 호칭과 관련된 변화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어 이름으로 부르다거나 이름 뒤에 “XX 프로님” 으로 부르다거나 호칭이나 직급으로 인해 사내에서 벌어지는 상하 직급 간의 충돌을 피하고자 한 시도였으나 딱히 그리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었다. 회사에 외국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사내 상하 직급의 충돌이 이슈가 되다 보니 궁여지책을 마련한 제도 같은데 MZ 세대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요구가 수용이 된 건지 이번에도 유사한 종류의 정책을 또 시행한다고 한다. A씨가 내려가서 커피 한 잔 하자며 내 자리로 왔다. 뭐 결국에는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울분을 토한 것인데, 아침 사건 이후 받은 본사의 메일도 화두가 되었는데 A씨의 말은 이랬다. “내가 진정 남에 대한 존중의 마음 없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진짜 존중이 생기는 걸까? 호칭만 바꿔 부른다고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될까?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늙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난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된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흔히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꼰대라고 비하하는데, 물론 상식 선을 벗어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

람의 인성이 문제인 것이다. 엄연히 분리되어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 자꾸 엮여서 나이 들면 예의가 없는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 예의로 따지자면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따지지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들 밑에서 뻘시럽게 자라서 예의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 젊다 세련됐다 라는 허울에 덮여 우리는 오히려 윗 사람이 아래 사람을 챙겨주고,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공경하여 위와 아래가 서로 도와주며 살던 그 시절의 정겨움을 생짜로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닌가? 왜 우리더러 꼰대라고 경우 없는 사람들로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침 사건이 직원 B가 젊고 내가 나이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저 본인은 사무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직원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고 윗사람과 이야기 하는데 버릇 없이 호주머니에 손을 꼽고 있는 것을 고쳐 주려 한 것뿐인데 다 싸잡아서 꼰대로 취급 받는 게 불쾌하다. 딱히 틀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을 해줬다. 돌이켜 보면, 나도 본사 담당자한테 내 직급으로 부르라고 한다. 나이 차이가 떠동갑보다도 더나는 녀석이 지난번에 “XX 님” 이라고 하길래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직급을 붙여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간혹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잔소리를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내가 그를 아래 사람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다. 내가 회사 선배니 그 대접을 받는 것이고, 후배는 선배를 대우하는 만큼 가르침을 받고 또 사랑과 이해를 얻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꼰대인가?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물어봤다. 꼰대라는 말이 썩 어감이 좋은 건 않지만 그게 윗 사람으로서 존중으로 받고 그 만큼 아래 사람에게 나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당당히 꼰대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21세기에 아직도 장유유서의 유교 철학을 벗어나지 못한 유교 보이 A씨를 응원하기로 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글: 권영경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때 한국의 대형 서점 앞에 커다랗게 써 붙여져 유명해진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다. 베란다 식물들의 어린 새싹을 볼 때,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을 볼 때, 신나는 이야기를 종알거리는 아이의 오물거리는 입술을 볼 때 이 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잘 써진 한 구절의 시, 잘 찍힌 사진 한 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느껴진다.

3년 만에 한국에 왔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났고 숨만 쉬어도 충만한 친정집에서 오랜만에 엄마가 아닌 딸로 생활 중이다. 내 아이 챙기느라 막상 나는 대충대충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나이 든 어머니의 보살핌을 한껏 받으며 그간 뭇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허함이 가득 차오르는 중이다.

부모님은 단양에 작은 한옥을 지어 살고 계신다. 50년 넘도록 서울에 사시다 자식들 출가와 함께 귀촌하셨다. 덕분에 아이와 나는 일 년에 몇 번 배산임수 기막히게 잘 되어 있는 시골 친정집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마치 숨 멈춘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처럼 그 곳의 모든 기억으로 끊어지기 직전의 에너지를 잇고 또 이어간다. 문만 열면 펼쳐지는 꽃과 벌, 새와 나무, 바람과 숲이 연주하는 음악회를 감상하고 있으니 지난 3년간의 코로나가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엄마의 정원은 삼년치의 단단함으로 무장되어 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은은한 보랏빛 낮 달맞이꽃이 참한 자태를 뽐어내고 있어 한참 쫓그려 앉아 안을 드러다 보았다. 그 옆엔 개망초가 또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몇 시간 전 잎을 펼쳐 놓은 것 같은 풍접초와 잎 몇 개 떨어져 나간 주황색 줄양귀비 꽃도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흔들고 있다.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떠오르는 화가가 있다.

평생 꽃과 씨, 사막을 그리던 미국화가 조지아 오키프.

그녀는 꽃을 크게 확대해서 그린 여성화가다. 그녀는 꽃이 너무 작고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꽃을 바라 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 꽃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것을 그림에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유명한 화가도 아니었고 작은 꽃을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그려보야 여전히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 여겨 집채만큼 크게 활짝 핀 꽃을 그리기로 결심한다. 평소에 꽃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 그녀가 그린 꽃을 보기 위해 귀한 시간을 선뜻 내어 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리고 정말, 그녀의 생각이 맞았다.

그녀의 그림을 보며 생각한다. 그녀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꽃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힘없는 존재였을까. 작고 힘이 없어 아무리 외쳐도 봐주지 않는 꽃과 같은 존재들을 위해 그녀는 그림을 그렸을지 모른다.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짧은 삶의 운명을 타고난 약한 자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녀의 꽃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다.

자카르타에서 잎이 큰 열대식물들만 보다 한국의 논길과 길가에 핀 단정하고 소박한 꽃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껏 다정하다. 마치 어렵게, 어렵게 이 모든 시기를 버티고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정이간다. 오키프의 시선을 빌려 한국의 들꽃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더 가까이 더 자세히 그들의 아름다움과 존재의 가치를 빠짐없이 느끼고 싶다.





여름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들꽃들

달맞이 꽃은 본래 밤에 피는 야생화인데 요즘은 원예종으로 보라, 핑크색 등으로 개량되어 나온다. 5~6월 초여름 개화하고 낮에 피는 달맞이 꽃이라 해서 낮 달맞이꽃이라고도 부른다.

옥스아이데이지는 무리지어 퍼 더욱 예쁜 꽃이며 여름국화라고도 부른다.

개망초는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들꽃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풀이라 “왜풀”이라고도 불렸다. 방치된 밭에서 수많은 곤충과 야생 조류의 서식처로의 기능을 한다.

풍접초는 과거 조상들이 혼례를 치를 때 여자가 머리에 얹는 장식, 족두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족두리 꽃이라고도 부른다. 선녀와 옷깃을 스친 한 청년이 선녀를 그리워하다 상사병으로 야위어 갔는데 이를 본 선녀가 안타까워하며 하늘에서 자신이 옷을 벗어 던졌고 그 자리에서 꽃이 자라났다고 하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풍접초도 보통 저녁이나 새벽에 개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짧지만 빛나는 사랑, 덧없음 같은 것이 느껴지는 꽃이다.

좁양귀비는 일반 양귀비와 달리 짙은 반점이 별로 없는 화려한 주황색이 특징이다. 벌, 딱정벌레, 파리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고 석회가 없으면서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 모래 토양에서 잘 자란다.

“내가 만약 꽃을 거대하게 그려낸다면, 사람들은 놀라서 그 아름다움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히 바라보기 위해 시간을 낼 것입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자세히 봐 주세요. 그 순간, 그것은 당신의 세계가 됩니다.”

—조지아 오키프



부모님이 곁에 있다. 한없이 다정한 저 들꽃들과 함께. 나는 이 곳에 있는 동안 그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시간을 낼 것이고, 깊어진 주름 하나하나 더 자세히 마음에 담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아낌없이 담으려다.

7월은 우리 주변에 활짝 핀 꽃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 따뜻한 시선의 힘은 크고 남겨진 추억은 한없이 영원할 것이다.

인도네시아협력원(Indonesia Centre) 개원



2022년 6월 2일 ‘인도네시아협력원(Indonesia Centre)’이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김홍구)에 문을 열었다.

6월 2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협력원’ 전시공간 및 사무국 (트리니티홀 4층)에서 거행된 개원식에는 김홍구 부산외대 총장, 간디 술리스띠얀토 수헤르만(H.E. Mr. Gandi Sulistiyanto Soeherman)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대사(인도네시아협력원 자문위원),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고곳 수하르위토(Dr. Gogot Suharwoto) 교육문화관, 랜디 뿌뜨라 다르마완 랜디(Mr. Reandhy Putera Dharmawan) 주한 인도네시아무역진흥센터장, 주한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서울대표, 주한인도네시아중앙은행(BNI) 서울대표가 참석했다.

‘인도네시아협력원’ 개원식은 인도네시아 외교부 및 교육부에서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중있게 평가되었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 및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설립한 제1호 인도네시아 협력기구임을 강조하고, 향후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에 있어서 인도네시아협력원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협력원’ 초대원장에는 김예겸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김예겸 초대원장은 영국 헐(Hull) 대학교에서 동남아시아학(인도네시아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PMA)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김 초대원장은 현재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SUVANNABUMI 부편집인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SCOPUS급 저서인 ‘Borneo and Sulawesi (출판사: Routledge)’를 공저 출판했다. 특히 김 초대원장은 인도네시아 북부수라웨시(North Sulawesi)의 마나도(Manado) 방언을 구사하는 국내 유일의 인도네시아 전공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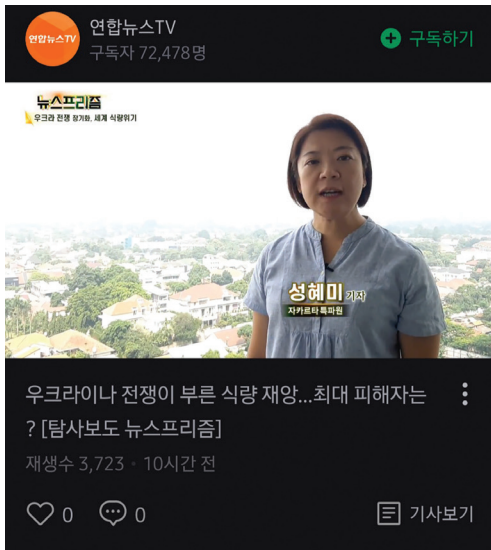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략적인 특성화차원에서 ‘인도네시아협력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대사도 인도네시아협력원에 자문위원으로 합류한다.

김예겸 초대원장은 “인도네시아협력원은 기존의 한국-인도네시아의 거시적 협력보다는 미시적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 또한 이를 통해서 부산외대 인도네시아 전공 학생들이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전문가가 되도록 학과 교육과도 연계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협력원은 우선 ‘BIPA+ Program’을 통해서, 한국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는 특수목적(비즈니스, 투자, 관광) 기반 언어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인도네시아대사관을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다양한 활동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공: 인도네시아협력원)

자카르타 특파원 임기 3년을 마치며 (하편)

성혜미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



연합뉴스TV '식량위기' 리포트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자카르타 특파원 3년 동안 쓴 기사는 3천400여건,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관련 기사는 2천100여건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인터뷰 기사 이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를 꼽는다면 당연히 코로나19 관련 기사이다.

특파원 부임 때만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나와 내 가족,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을 줄 상상도 못 했다. 2020년 3월 인도네시아의 첫 확진자 기사부터 시작해 꼬박 2년 동안 끊임없이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써야 했다.

특히, 특파원인 만큼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의 첫 확진자 발생, 한국 기업 현장의 집단 감염, 사망자 발생, 에어앰블런스과 전세기 이송 등 한인 관련 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 힘썼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혈전이 생겨 다리가 괴사하는데 절단 수술비가 없었던 한인이 기억에 남는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인회, 코참에서 곧바로 수술비를 지원했고, 대사관에서도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이분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무려 20명이 넘는 재인도네시아 한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이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사망 기사를 쓸 때마다 “제발 희생자가 더 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 교민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기러기 생활을 해야 했던 분들도 많다.

팬데믹 시기를 자카르타에서 보낸 한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동지애’가 생긴 것 같다. 그 어려운 시기를 타국에서 보냈다는 점,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지가 맞다.

자카르타 남부 에센스 아파트 교민들이 혼자 집에 격리된 한인 확진자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걸어둔 모습, 무궁화마트를 비롯해 각종 식료품 사업자분들이 구호품을 만들어 전달한 모습, 어렵게 병실을 구해주고, 병원비를 보태준 모습 등등.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앞장서서 마스크와 의료품 등을 조달해준 한인회와 한국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 기사 이외 특파원 시절 내내 꾸준히 신경 써 챙긴 이슈들이 있다.

▲ KF-21 전투기 한-인니 공동 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2차 사업 등 방산사업 ▲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이슈 ▲ 칼리만탄 수도이전 ▲ 지와스라야 보험사기 사건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잠수함과 훈련기를 구매해준 ‘최우방 국가’로서 KF-21 공동 개발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내가 귀국하는 이 시점까지 공동 개발 분담금 8천여억원을 연체하고, 성의 표시를 하지 않는 바람에 한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내가 쓴 KF-21 관련 기사는 물론 인도네시아 코끼리, 호랑이 기사에도 “인도네시아는 손절해라”는 댓글이 달린다. 제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체금을 일부라도 신속히 상환해서 양국 간 우호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

내가 자카르타 특파원을 맡은 동안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이 완성돼 전기차 아이오닉5 등 생산을 시작했고, 현대차-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강현 신임 코참 회장님은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돈독한 인맥을 십분 발휘했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배터리에 필요한 니켈을 비롯해 각종 자원을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4월말에는 팜유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한국을 포함해 주요 수입국에 비상이 걸렸고, 나도 열

심히 관련 기사를 처리했다.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배짱이 부러울 따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을 향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투자는 더 늘 것이라서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는 ‘제2의 르네상스’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은 느리더라도 접을 수는 없는 사업으로 보인다.

지와스라야 보험사기 사건은 460여명의 교민이 4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2년 넘게 애태운 사건이다. 이들은 결국 이자는커녕 원금을 장기 분할로 돌려받게 됐다. 꾸준히 기사는 썼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밖에 2021년 1월 스리위자야 여객기가 수카르노-하타공항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객 62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 같은 해 4월 53을 태운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이 발리 앞바다에서 침몰해 전원 사망한 사고 기사 역시 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까지 끌려온 위안부의 흔적이 남아있는 스마랑,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되 부족언어를 한글로 전수하는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마을,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뿌리인 장운원 선생의 유적 탐방 기사도 기억에 남는다.



[잘란 잘란] 무아라 앙게 수산시장 취재



[잘란 잘란] 자카르타 맹그로브 숲 취재

[잘란 잘란] 연재 시리즈로 담배, 커피, 노점, 삼발, 수산시장, 한국 마을 등을 주제로 쓴 기사도 재밌었다.

정말 ‘잘란 잘란’ (산책하다)하는 기분으로 취재 다녔다. 나는 본래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은 신태용 감독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축구 기사도 여러번 썼다.

특파원은 혼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기사까지 필요한 기사를 다 처리해야 하기에 이전에 쌓은 경험이 중요하다. 특파원 파견은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든다. 그래서 통상 한국 언론사는 특파원을 기삿거리가 많은 미국·중국·일본에 두고, 회사별로 많아야 10명이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라서 전 세계에 40여 명이라는 가장 많은 특파원을 파견한다.



[잘란 잘란] 센톨 논길 트래킹 취재

나는 연합뉴스의 자카르타 4호 특파원으로서 과장되거나 치우침 없이, 수식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만 전달하도록 노력했다. 인도네시아의 최신 이슈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다양한 휴먼스토리와 재밌는 기사를 꾸준히 작성해 양국 거리를 좁히는 데 힘을 보탰다고 자부한다. 이제 이 역할을 5호 특파원 박의래 기자가 잘해 줄 것으로 믿는다.



룸복섬 두낙 생태공원, 딸과 함께



딸과 함께 길리섬 여행 당시





무궁화유통, 2022 K Brand Award에서 리테일 부문 우수상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한국상품 유통사인 무궁화 유통(PT.Koin Bumi. 대표이사 : 김종헌)이 2022 K Brand Award에서 리테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21일(토) 자카르타 Kota kasablanka Mall에서 한인도네시아 경영 협회(KIMA)와 인도네시아 마케팅협회(M CORP)가 주최한 ‘인도네시아 K Brand Award 2022’ 에서 무궁화 유통은 리테일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주인도네시아 박태성 한국대사는 “중국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국 브랜드를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2,000여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미약하다. 점차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고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무궁화 유통 김종헌 대표는 “점차 한국 식품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한국 제품에 대해 구매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많은 한국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소개되기를 희망한다” 면서



‘인도네시아 K Brand Award 2022’ 무궁화유통 리테일 부문 우수상 수상

“무궁화 유통이 대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K Brand 리테일 부문상을 받아 기쁘다” 고 말했다.

한편, 무궁화 유통(PT.Koin Bumi)은 1980년에 창립하여 5,000개 현지 유통업체에 한국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궁화 마트 직영점 및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30개 점에 이른다. 또한 한국 수입상품은 1,500개 종류가 된다.

(제공: 무궁화유통)

인도네시아 계약법(Hukum Perikatan)

(전호에서 계속)

10.1. 위임의 종류

위임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종류는 공정증서 위임, 일반문서 위임, 구두 위임, 묵언 위임, 무료 위임, 특별 위임 및 일반 위임이 있다.

10.1.1. 공정증서 위임이란 위임자가 공증인 앞에서 피위임자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하고 위임사항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한 위임관계를 뜻한다. 위임하는 내용이 적법해야 하며 법정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 위임장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가 공정 위임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공정 위임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공정증서 위임을 요구하는 특정 사항이 있다. 부동산 매각 위임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정증서 위임장이어야 한다. 자카르타 지역의 경우 부동산 매각 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최장 1(일)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공정증서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사인은 보이지 않고 서명 날자와 증인의 성명 및 공증인의 사인만 보인다.

10.1.2. 일반문서 위임이란 공증인을 개입시키지 않고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위임을 한 위임을 뜻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위임 내용을 타자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부치고 서명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임은 일반문서 위임에 해당된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여 지고 있는 위임 방법이며 또한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에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은 위임 방법이기도 하다.

10.1.3. 구두 위임이란 문자 그대로 서면이 아닌 말로 하는 위임이다. 손가락으로 피위임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내 피위임자라고 가리키는 위임이

다. 민법에서 구두 위임도 적법한 위임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면 구두 위임은 피하고 서면 위임이 바람직하다.

10.1.4. 묵언 위임은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으나 처리된 일의 결과로 봐서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된 결과로 간주되는 위임을 뜻한다.

10.1.5. 무료 위임이란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일을 반대급부 없이 무료로 처리한다는 위임을 뜻한다. 모든 위임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리하는 일에 대한 보수를 위임자가 피위임자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 위임에서는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보수 지불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위임자도 위임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 권리가 없다.

10.1.6. 특별 위임이란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뜻한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특정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주는 위임은 특별 위임이다.

10.1.7. 일반 위임이란 위임자의 모든 사항을 피위임자에게 위한다는 내용의 위임이다.

일반 위임은 관리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에 관한 사항을 일반 위임으로 하는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위임자의 모든 재산 매각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이 위임장으로는 재산 매각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법에서 재산 매각 위임은 반드시 위임장에 매각 위임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지번, 등기권리증서 번호, 등기권리증서 보유자 성명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내 자동차 매각을 위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차종, 모델, 자동차 번호 및 차량소유 증명서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직접 서명하는 위임장도 무방하나 중요한 사항, 특히 부동산 매각 위임, 주식 매각 위임, 경영권 위임, 중요한 의제의 주주총회 참석 위임, 근저당권 설정 위임, 양도 담보권 설정 위임, 보증에 관한 위임 등은 위임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10.2. 피위임자의 의무

민법 제1806조에 규정한 피위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0.2.1. 위임받은 사항을 모두 수행할 때까지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10.2.2. 피위임자가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비, 손실 및 이자 배상 의무가 있다.

10.2.3. 피위임자가 피위임 사항에 대하여 수행을 시작했는데 위임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피위임자는 피위임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피위임 사항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10.2.4. 피위임자는 위임받은 사항 수행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 의무가 있다.



10.2.5. 피위임자는 피위임 사항 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위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10.2.6. 피위임자가 위임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피위임자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10.3. 위임자의 의무

민법 제1807조에서 제1812조까지 위임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0.3.1. 피위임자가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

10.3.2. 피위임자가 위임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한 모든 경비를 피위임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피위임자에게 임금 비불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금 지불 의무가 있다.

10.3.3. 피위임자가 피위임 사항을 정상으로 수행하면서 입은 손실을 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위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가 없다.

10.4. 위임의 실효

민법 제1813조에 다음의 경우에 위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4.1. 위임자가 위임을 취소한 경우

10.4.2. 피위임자가 위임을 반환한 경우

10.4.3. 위임자 혹은 피위임자가 사망하거나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10.4.4. 위임자 혹은 피위임자가 법정피관리인이 되거나 두 사람의 모두 법정피관리인이 된 경우

10.4.5. 위임자 혹은 피위임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0.4.6. 미혼 여성 위임자 혹은 미혼 여성 피위임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아직도 성장기

글: 홍석영 편집장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잡아보는 G, C, D, E, Am, Em 이 여섯 개의 기본 코드로 도 여러 곡의 노래반주가 가능하다. 적용하는 센스에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으나. 이처럼 어느 정도의 잔재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보통은 그 기본에서 멈추는 안타까움이 있다. 악보없이 악기를 들고 즐겁게 연주하기까지는 먼 경지이다.

나도 어느 방면에서는 그 경지에 오르고 싶다고 여지껏 갈망을 하며 살고 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있는 사람은 갈망하지 않아. 갈망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란 대사를 듣고 잠깐 동의하려다 고개를 저었다. 갈망이 없다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닐 거야. 그러니 성립이 안 되는 소리.

인생에서 단맛은 무얼까?

내 사탕은 뭘까?

여러 맛의 사탕이 있다.

행복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다르듯. 단맛을 보려고 애쓰지만 신맛도 쓴맛도 인생에서 보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설탕은 돈이다.

단물이 나오는 곳, 일터에 머무른다.

일터에선 때론 병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살아야하는 한다. 이렇게 여러 해를 살다보니 내 안에 장애가 들끓는다. 이것까지 산재로 취급.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하지 않나? 내가 주식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국내외 투자 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을 예견하게 된다. 미국 대공황 직전 구두담이가 주식을 사겠다는 걸 듣고 금융계 대부가 주식을 팔아서 횡액을 모면했다는... 나는 구두담이를 넘어서는 지식이 없다. 어느 집 가훈이 ‘주식하지 말라’ 가 있다는 것은 귀담아 들을 일이겠지.

고대의 모든 문제 연구소장 소크라테스는 자기 검토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자기 검토란 반성적 사유를 말한다. 그 세력에 비해 가정경제에 기여가 미진했던 소크라테스가 부인 크산티페를 악처의 상징인물로 만든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자기검토는 부족했던 것 같다. 배가 고프다면 소크라테스라는 타이틀은 과감히 던져버리는 시대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방면에서의 개선, 전환, 유지 등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은 있지만 내안의 가동은 원활하지 못하다.



나는 종종 많을 일을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뭔가 달랐을 것 같이 말하게 된다.

한국은 뭐든 성장을 위한 진입로에 ‘학원 등록’이 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나만 모를 것도 나만 아는 것도 없는 지식과 정보의 보편화 사회가 도래한 지 오래다. 하지만 날씨, 건강, 기분 등의 이유를 대며 휴식을 도모하게 된다. 내 자신을 잘 알기에 포기도 빠르다. 도전도 신중하다. 하다가 그만 둔 일들에 하나를 보태고 싶지 않기에.

가끔 비행기 안에서 밖을 보기엔 이미 다 왔는데 비행기가 주변을 돌면서 착륙을 지체할 때가 있다. 어느 땐 오히려 공항과도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다 와서 빙빙 맴도는 상황이 좋을 리 없다. 각 방향에서 모이는 비행기들은 입항절차에 따라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 가며 줄서기 판을 짜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길에도 병목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은 어디나 있다는 것을 또 깨닫는다.

얻고 싶은 것은 책임과 대가가 따르기에 그것마저 포기하는 세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압박을 느낀다며 화가 나 있는 세대. 무엇을 해야, 누가 되어야 행복한지 어른들과는 말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와 입을 닫고 있어야 손절 당하지 않는, 관계에서 길을 잃은 나이 든 세대가 있을 뿐이다. 관계를 맺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 여전히 내게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삶은 이제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그 방식을 서로 공유할 수 없을 만큼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공유하는 공간에서 평화롭게 사는 길을 모색할 뿐이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것은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나의 지경은 좁아질 것이다.

제1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아름다운 모국어로 짠꼬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0년 첫 씨앗을 뿌린 뒤 여러분의 관심과 언어 한 줌으로 키운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전이 제12회를 맞이합니다. 산림과 생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난해부터 한인문화연구원과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와 공동 주최하는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 가장 유서 깊은 문학상으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설 △수필 △시/시조 △동화/동시로 한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주제 : ‘인도네시아에 관한 이야기’ (예: 해외 거주, 산림, 생태, 치유 등)
- 공모 대상 : 학생부 (중·고등학생) 및 일반부 (대학생·성인)
 - ※ 성인부 대상(혹은 최우수상)은 한국문예지에 등단 기회 부여
- 접수 방법 : 2022년 07.15(금) ~ 09.15(목) 18:00 마감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또는 학년 표기 후 이메일(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com) 동시 송부
 - 산문 A4 3쪽~5쪽 / 운문 2편 이상 (맑은고딕 10p, 행간 160%)
 -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본(hwp, doc) *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작품명
 - 순수 창작물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 취소)
- 시상식 : 추후공고
- 시상 내용 : 상장 및 상금



구분	상명
대상	주인니대한민국대사상, 주ASEAN 대한민국대표부대사상
최우수상	재인니한인회장상, 한인문화연구원장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한인기업 PT. TAEWON INDONESIA상, 인문창작클럽회장상
특별상	Lembaga Kebudayaan Betawi상, 인니갤러리 Widayanto상
	Indonesia Korea Friendship Association상, 인니 예술가상
장려상	한인문화연구원장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를 주제로 한 뛰어난 작품은 한인회장상에 중복시상 됨
 ※ 시상 내용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문의처 : 0815 1901 0570, 0812 8642 3992 / lilac40004@gmail.com, cine0301@hanmail.net

■ 후원:  아름다운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재외동포재단  PT TAEWON INDONESIA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도전하니 청춘이다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2년 7월 1일~ 9월 30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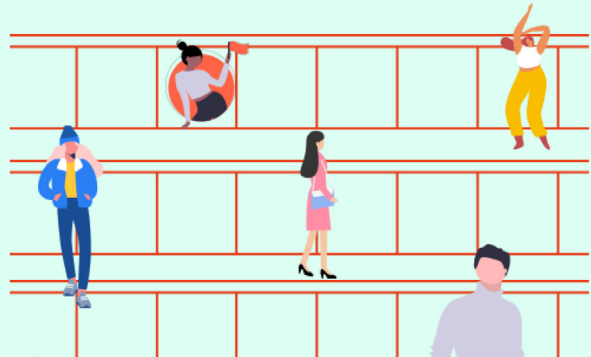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따뜻한 감성으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제2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접수 기간 07.15 - 09.15

참가자격

- 인도네시아 거주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공모 주제 및 형식

- 인도네시아의 숲과 나무, 생태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
- 꿈과 희망이 담긴 인도네시아 거주 이야기 (체험수기, 동화, 동시 등)

제출 방법

- 산문 A4 2~3쪽 (기준 분량 초과 작품 허용) / 운문 2편 이상 (맑은고딕 10p, 행간 160%)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본(hwp, doc) /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작품명
- 2021mothernature@gmail.com로 접수

시상 내역

구분	상명
대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최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우수상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KOICA 소장상

문의사항

- 081 111 7230
- 카카오톡 madonna202
- 2021mothernature@gmail.com

주최



후원



2022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2.1.1. ~ 6.24.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3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4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5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6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 SAN HOLDING	10,000	
7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8	부회장	강영균	PT. HELMINDO UTAMA	5,000	
9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0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1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2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3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4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15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6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7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8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9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0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21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2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3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24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25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6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7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28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29	이사	길병완	PT. DAEOYOUNG DUNIA SUBUR	1,000	
30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31	이사	김문수	PT. QUTY KARUNIA	1,000	
32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33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34	이사	김종규	PT. ELIM TECH	1,000	
35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36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7	이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38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39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40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41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42	이사	성예식	PT. F1-LOGIX	1,000	
43	이사	안윤근	PT. YONG WOO INTERNATIONAL	1,000	
44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45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6	이사	이소왕	PT. DOOWANG INDONESIA	1,000	
47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48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49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50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51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2022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생금 납부 명단

번호	성명	금액(IDR)
1296	하재수	300,000
1297	이완주	300,000
1298	엄정호	300,000
1299	박성대	300,000
1300	김문수	300,000
1301	조용재	300,000
1302	김영율	300,000
1303	김창근	300,000
1304	김대근	300,000
1305	김소용	300,000
1306	이경욱	300,000
1307	이지선	5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308	안윤근	300,000
1309	이성용	300,000
1310	이현용	300,000
1311	정창섭	300,000
1312	이소왕	300,000
1313	이지선	500,000
1314	김정균	300,000
1315	장수봉	300,000
1316	김종규	300,000
1317	이지선	500,000
1318	김태화	300,000
1319	신규태	300,00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I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	-----	------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골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프롱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	-----------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an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공 하숙(리보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보찌까랑)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 종교 단체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재)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충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 · 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현재 2022. 06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361) 472-173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 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1	즈파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BE
THE FIRST
MOVER**



KMK GROUP